

2014년도

제34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학술대회

한·일 공동의 역사인식을 위한 사상적 조건

—公共性과 寬容—

주 최 : 한국일본사상사학회

경희대 비폭력연구소

후 원 : 동북아 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2014년도

제34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학술대회

일시: 2014년 6월21일(토) 오후1시

장소: 경희대 본관 201호 대회의실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4년도 제34차 한국일본사상사학회 학술대회 일정>

○접수 및 등록 12:30~13:00

○개회 13:00~13:10 허우성(한국일본사상사학회 회장)

○기조강연 13:10~14:25 한·일의 병리를 진단한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朝日新聞前主幹)

○제1부 사회:송완범(고려대)

▶제1발표

14:30~15:20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시도와 좌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간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발표: 박진우(숙명여대)
토론: 서민교(동국대)

▶제2발표

15:20~16:10 역사 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
발표: 하우봉(전북대)
토론: 장순순(가천대)

-----중간 휴식-----

○제2부 사회:이권희(단국대)

▶제3발표

16:20~17:10 일본 제국주의 '公共性'의 한 단면
-工藤武城의 조선에서의 <儒敎-醫療> 탐구를 중심으로-
발표: 최재목(영남대)/김정곤(영남대)
토론: 고희탁(연세대)

▶제4발표

17:10~18:00 탈식민주의 과제와 한·일 역사화해의 새로운 모색
-방법으로서 한일 역사 교과서대화를 중심으로-
발표: 이신철(성균관대)
토론: 이형식(고려대)

-----중간 휴식-----

○제3부 종합토론 18:10~19:00 사회:박홍규(고려대)

목 차

1. **한·일의 병리를 진단한다**-----1쪽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朝日新聞前主幹)
2. **한·일 역사 화해를 위한 시도와 좌절**-----5쪽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간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박진우(숙명여대)
3. **역사 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18쪽
하우봉(전북대)
4. **일본 제국주의 ‘公共性’의 한 단면**-----36쪽
-工藤武城의 조선에서의 <儒敎-醫療>탐구를 중심으로-
최재목(영남대)/김정곤(영남대)
5. **탈식민주의 과제와 한·일 역사화해의 새로운 모색**-----53쪽
-방법으로서 한일 역사 교과서대화를 중심으로-
이신철(성균관대)

「日韓」の病理を診断する

2014.6.21 若宮啓文

(1) 日韓のこじれた病状

相手の醜さが拡大されて見える病い

◆日本は「驕りの国」=いまだ過去を美化して、帝国主義時代の栄光を夢見る危険な国。「反省」「謝罪」は口だけ。他人の不幸を踏み台にして経済発展した自己本位の国。

◆韓国は「甘えの国」=自己の非は顧みず、すべてを日本の責任にし、日本の悪事を世界に宣伝して快感を得る国。「漢口の奇跡」に協力した恩を忘れた自己本位の国。

(2) 東アジア3兄弟の葛藤

「中韓日」は東アジアの三兄弟。幼いころは長男、次男に何かと教えてもらった三男だが、年とともに野望を抱いて次男を抑え、長男にも挑んで一家支配をもくろんだ。挙句に隣近所も敵に回して町内ボスにこっぴどくやられる。それでも三男はボスの庇護を受けて改心し、平和のもと長男、次男もうらやむ成長を急速に果たした。

一方、問題児になった長男らの脅威にさらされた次男は軍服をまとい、三男と手を結んで成長を実現。続いて三男は長男とも仲直りし、その社会復帰と発展に手を貸した。また、三男は軍服を脱いだ次男とサッカー大会も一緒にやってすっかり仲良くなったが、潜在的体力に恵まれた長男が力をもつと、次男はそちらになびきがち。いつの間にか、長男と次男は「昔の恨み」を合唱し、三男いびりで手を握っている。三男は「裏切られた」との思いを膨らませ、いまや三者が<被害者>意識をぶつけ合う。敷地の境界争いも再燃して深刻だ。<傷つくプライド>をどう癒すか。

(3) 日韓関係の戦後（解放後）

《第1期》 傷が生々しかった時代（1945～1964）

- ・李承晩大統領に代表される韓国の強烈な「反日」（李ライン）
- ・久保田首席代表の発言に代表される「反省しない日本」

《第2期》 無理やり傷を抑えた時代（1965～1987）

- ・軍事独裁政権と、反省の薄い保守政権が「反共」で連携。米国が後押し
- ・経済協力が「漢江の奇跡」生んだ原動力に
- ・広がり欠く理解。時に噴き出した構造矛盾（金大中拉致、歴史教科書事件etc）

《第3期》 健康が回復した時期（1988～2002）

- ・韓国の民主化とソウルオリンピック
- ・繰り返された日本の謝罪（河野談話93年、細川発言93年、村山談話95年）

- ・金大中・小渕が「謝罪と和解」の共同宣言。日本文化の開放も（98年）
- ・サッカー2002W杯の日韓共催（決定は96年）、韓流ブームの開花

《第4期》 傷の再発に悩む時期（2002～）

- ・W杯が終わって結束のタガがはずれる
- ・靖国参拝の再燃（2001年からの小泉、いまの安倍）
- ・北朝鮮による日本人拉致の衝撃。日本が被害者に転換（2002）
- ・「独島・竹島」問題の深刻化（2005竹島の日、2012李大統領の訪問）
- ・慰安婦、徴用工問題で韓国に新たな司法判断（2011～13）
- ・根強い村山・河野談話の修正論と、警戒心
- ・首脳会談が開けず（2012～）

（4）第4期の困難

- ① 進んだ世代交代
- ② 民主化とポピュリズム（ネット時代）
- ③ 中国の強大化と日韓の平準化
- ④ 北朝鮮の拉致問題と南北の融和
- ⑤ 韓国の司法における「日韓条約体制」への懐疑
- ⑥ 日本に膨らむ「謝罪疲れ」と「普通の国」願望
- ⑦ 安倍首相の体質（祖父・岸信介へのあこがれ）
- ⑧ 朴槿恵大統領のジレンマ（朴正熙の娘という重圧）
- ⑨ 機能しない政治の危機管理

（5）病理の克服は根本的な問いから

- ① 日韓が「敵」になることはあるのか。（竹島・独島で戦争になるか）
- ② 南北朝鮮が戦争になったら、日本はどうすればいいのか
- ③ 韓国は北朝鮮と日本のどちらを信用するのか
- ④ 日韓はそれぞれ「南北統一」を本当に望むのか
- ⑤ 日韓は中国に従属する時代を迎えたいのか
- ⑥ 世界の中、アジアの中で日韓が一番似ていないか
- ⑦ 「共通の価値観」と「歴史観」はどこまで共有できるのか
- ⑧ 日韓の仲が悪いと、どちらかが得するのか
- ⑨ 国民どうしの仲は本当に悪いのか
- ⑩ 相手に世話になったこと、相手によい点はないのか

「한일」의 병리를 진단한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1) 한국과 일본의 뒤틀린 상태

◆상대의 흠이 확대되어 보이는 병

◎일본은 「교만한 나라」 = 아직도 과거를 미화하여, 제국주의시대의 영광을 꿈꾸는 위험한 나라. 「반성」·「사죄」는 말뿐. 타인의 불행을 발판으로 해서 경제발전을 이룬 자기중심의 나라.

◎한국은 「응석받이의 나라」 = 자기의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일본의 책임으로 돌리고, 일본의 악행을 세계에 선전함으로써 쾌감을 느끼는 나라. 「한강의 기적」에 협력한 은혜를 잊어버린 자기중심의 나라.

(2) 동아시아 3형제의 갈등

「중국·한국·일본」은 동아시아의 3형제. 어렸을 때는 장남·차남에게 여러 가지를 배웠던 삼남이 나이를 먹으면서 야망을 품게 되었다. 삼남은 차남을 누르고, 장남에게도 시비를 걸어서, 온 집안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결국 삼남은 이웃집도 적으로 돌리고, 마을의 우두머리에게 호되게 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 후 삼남은 우두머리의 비호아래 마음을 바로 잡고, 평화 속에서 장남, 차남도 부러워할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내었다.

한편 문제아가 된 장남에게 위협을 받았던 차남은 군복을 갖추어 입고, 삼남과 손을 잡고 성장을 실현. 뒤를 이어 삼남은 장남과도 화해를 하고, 장남의 사회복귀와 발전에 도움을 주었다. 또 삼남은 군복을 벗은 차남과 축구 대회도 함께 하며 완전히 화해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잠재적 체력이 뛰어났던 장남이 힘을 가지게 되자, 차남은 그쪽으로 불으려 한다. 어느샌가 장남과 차남은 「과거의 원한」을 함창하며, 삼남을 혼내는 데에 의기투합하고 있다. 삼남은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지금은 세 사람 모두 <피해자>의식을 가지고 서로 맞붙고 있다. 부지의 경계를 둘러싼 다툼도 재연되어 심각한 상태. <상처받은 자존심>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3) 해방후의 한일 관계

《제1기》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처의 시대 (1945~1964)

- 이승만대통령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강렬한 「반일」 (李라인)
- 구보타(久保田)수석대표의 발언으로 대표되는 「반성없는 일본」

《제2기》 역지로 상처를 덮었던 시대 (1965~1987)

- 군사독재정권과, 반성의 정도가 약한 보수정권이 「반공」으로 연대. 미국의 후원.
- 「한강의 기적」을 낳은 원동력이 된 경제협력
- 편협한 이해. 때마다 분출되어 나온 구조모순 (김대중 납치, 역사교과서 사건 등)

《제3기》 건강이 회복된 시기 (1988~2002)

- 한국의 민주화와 서울 올림픽
- 거듭된 일본의 사죄. (고노(河野)담화 93년, 호소카와(細川)발언 93년, 무라야마(村

山)답화 95년)

- 김대중·오부치(小淵)의 「사죄와 화해」 공동선언. 일본문화 개방(98년)
- 2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주최 (96년 결정) , 한류 붐의 개화

《제4기》 재발된 상처로 고뇌하는 시기 (2002~)

- 월드컵이 끝나고 결속의 끈이 느슨해짐
- 야스쿠니신사 참배의 재연 (2001년 고이즈미(小泉)부터, 현재의 아베(安倍) 까지)
- 북한의 일본인 납치사건에 대한 충격. 일본이 피해자로 전환(2002)
- 「독도·다케시마(竹島)」 문제의 심각화 (2005년 독도의 날 지정, 2012년 이명박대통령의 독도방문)
- 위안부, 징용노동자 문제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사법 판단(2011~13)
- 뿌리깊은 무라야마(村山)·고노(河野)답화에 대한 수정론과 경계심
- 재개되고 있지 않는 수뇌회담 (2012~)

(4) 제4기의 곤란

- ① 세대교체의 진행
- ② 민주화와 포퓰리즘(인터넷시대)
- ③ 중국의 강대국화와 한일 평준화
- ④ 북한의 납치문제와 남북 화합
- ⑤ 한국 사법상의 「한일조약체제」에 대한 회의
- ⑥ 일본에서 팽배해지고 있는 「사죄에 대한 피로」와 「보통 국가」에 대한 염원
- ⑦ 아베수상의 성향 (외조부인 키시 노부스케(岸信介)에 대한 동경)
- ⑧ 박근혜 대통령의 딜레마 (박정희의 딸이라는 중압감)
- ⑨ 기능하지 않는 정치의 위기관리

(5) 병리의 극복은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 ① 한국과 일본이 「적」이 될 수도 있을까 (독도·다케시마에서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 ②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 ③ 한국은 북한과 일본, 어느 쪽을 믿을 것인가
- ④ 한국과 일본은 진정으로 「남북통일」을 원하는가
- ⑤ 한국과 일본이 중국에 종속되는 시대를 맞고 싶은 것인가
- ⑥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은 가장 비슷하지 않은가
- ⑦ 「공통의 가치관」과 「역사관」은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가
- ⑧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게 되면, 어느 쪽이 득을 볼 것인가
- ⑨ 양국 국민의 사이는 정말로 나쁜가.
- ⑩ 상대에게 신세를 졌던 적, 상대의 좋은 점은 없는가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시도와 좌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 간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

박진우

일본의 패전과 한국의 해방 70년, 그리고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한일 양국관계는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12년 8월 이명박 정권 말기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발언 이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더욱 냉각되었고, 한국에서는 같은 해 12월 아베 신조가 제2기 내각으로 집권한 이후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깊어졌다.

이에 더하여 일본의 ‘넷우익’이나 ‘재특회’ 등의 헤이트스피치나 ‘협한’ 시위가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있으며, 한국의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한 거듭되는 사죄와 배상요구, 관동대지진 90년을 기해서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움직임 등이 일본의 ‘협한’ 인식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일국교정상화 50년이라는 시간적인 폭을 두고 볼 때, 한일관계는 갈등과 대립을 반복하면서도 상호 이해와 우호를 위한 노력은 갖가지 민간교류, 문화교류, 연구교류 등을 통하여 꾸준히 성과를 축적해 왔으며 작금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의 충동을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지혜는 서로가 갖추고 있다고 믿고 싶은 부분이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가 심각한 좌초에 부딪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화해·협력과 갈등·대립의 배경과 요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되살펴 보는 것은 현 상황을 극복하고 전향적인 한일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시도의 일환으로 먼저국교정상화 이후 지금까지의 한일관계가 화해, 협력과 갈등, 대립을 되풀이 하는 사이클을 중심으로 그 시대적 배경과 요인을 살피고, 이어서 이러한 현상들이 양국 간의 상호인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한 어떤 특징이나 인식차를 보이는지 주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I. 국교정상화 이후 연표로 본 한일관계

1. 1965~1980년대 전반

*냉전체제와 군사정권의 규정성

-군사정권과 보수정권의 반공이라는 공동의 목표.

-한국 경제개발의 필요성과 일본 기업의 해외 투자에 대한 이해관계. 경제 분야에서의 공동 이해를 위한 협력. 식민지 책임론 보류, 역사의 상처에 대한 국민감정 봉인

-후진국 한국으로써는 미국과 일본의 압도적인 영향 하에서 불리한 상황에 있었고, 독재 권 력에 의해 미일 양국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는 억제 · 봉인되어 왔다.

* 일본의 대한감정을 악화시킨 것

-김대중 납치사건, 민청학련사건, 박정희 암살, 광주민주화운동 무력진압, 군사쿠데타, 김대중 사형 판결 등
-한국에 대한 이미지 : 군사 독재, 폭력적, 언론통제, 후진국

* 한국의 대일감정을 악화시킨 것

-요도호 인질구출 협력에도 불구하고 '무시당한 노력'
-문세광 사건(영부인 사망)
-1982. 7 : 역사교과서 문제
-식민지 지배를 배경으로 한 고정된 '반일' 감정
-'반일'에도 불구하고 일본어 제2 외국어(1973)
-한국의 도쿄올림픽, 오사카 만국박람회에 대한 '동경', 기성세대의 일본에 대한 '향수'

2. 냉전 구도 하에서의 화해와 협력

*한미일 트라이앵글

-1980.8 : 전두환 대통령 취임
-1981.1 : 레이건 대통령 취임, 전두환 방미
-1982.1 : 中曾根 수상 취임
-1983.1 : 中曾根 수상 방한, 방미
-1983.9 : 대한항공기 격추 사건
-1983.11 : 레이건 대통령 방일, 방한(12월)
-1984.9 : 전두환, 국가원수로는 최초의 공식 방문. 쇼와천황의 '오고토바'
-1985.8.15 : 中曾根 수상 야스쿠니신사 공식방문. 1986년 한중의 항의로 참배 중지

*1984년 전두환 방일과 천황의 '오고토바'

-전두환, 中曾根 정권의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에서 한일관계 개선 추진
-전두환 쿠데타~집권까지 일본 정재계의 활발한 로비(瀬島竜三 회상록)
-전두환 방일계획 당초(1984년 초)부터 한국 측의 관심은 천황의 '사죄'에 집중
-쇼와천황의 '오고토바'는 정치적 이용에 의한 미봉책.

*쇼와천황의 '오고토바'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평가

-일본의 '오고토바'에 대한 여론조사 : 좋았다 75%, 좋지 않았다 10%(아사히, 84.9.22)
-"과거의 역사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사죄가 빠진, 참으로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호도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민한당 목요상 대변인)
-"한일 간에 불행한 과거라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고려왕조 이래 메이지 이후까지 침탈 당한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가해자인 일본이 불행했던 것은 아니다."(송건호 동아일보 편

집국장)

3.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사죄'와 '반발'의 연쇄

- 한국의 친황의 '오고토바'에 대한 불만,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신사 참배 비판
- 한국의 비판에 대한 반발로써의 후지오, 오쿠노 발언
- 90년대 이후 '사죄'와 '반발' 되풀이(표 참조)

*탈냉전 이후 내셔널리즘의 충돌

-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성장, 국제적 교류 범위 비약적으로 증대
- 냉전 종결로 한반도 정세 급변. 소련, 중국과 한국관계 개선(북방외교)
→ 국민의식에 투영. 소련, 중국, 북한에 대한 적대감 완화
- 냉전기 봉인되어 왔던 과거사 청산 문제에 대한 인식 차 표면적으로 분출
-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거둬들인 사죄(宮沢, 河野, 細川, 村山, 橋本)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 갈등 고조. 일본의 '망언', 김영삼의 '막말'
- "한국의 강경자세의 배경에는 국력이 급신장하고 문민정부가 등장하는 등 국교정상화 당시와는 명백히 다른 상황"(외무성 당국자의 말)
-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은 지혜를 빌려 능숙하게 피하면 되는데 태연하게 '망언'을 반복하는 것은 한국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조선일보 1995.11.11)
- "분명히 일본 정치가들에게는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다."(『産経』 1995.11.12)
- 90년대 중반에는 역사인식 문제에 더하여 독도문제, 북핵 문제 등이 갈등 요인으로 가중
- 이상의 문제와 맞물려 진행되는 일본의 보수우경화
- 일본 국내 정치의 우경화는 한일 간의 과거사문제, 영토분쟁, 한반도문제 등과 상호 연동

4. 1990년대 후반 이후

*한일월드컵 공동개최와 일본대중문화개방(1996~2002)

- 1996년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1998년 일본대중문화개방 시작
- 일본의 '러브레터'(1999), 한국의 '쉬리'(2000) 대히트
- 민간, 지역, 개인 레벨의 상호 교류 양적 확대,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 증가
- 2000년대 한류 붐의 발판

*2000년대 중반 이후

- 한류 붐, 문화교류, 인적교류, 지역 교류 활발
- 야스쿠니, 독도(다케시마), 위안부 문제 지속 +혐한시위
- 한류 붐과 화해·협력 속에서도 갈등, 대립은 지속
- 상호 협력과 화해, 우호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갈등과 대립을 수반하는 쟁점 되풀이. 현실적인 문제와 역사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
- 양호한 분위기 속에서도 악화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으며, 악화된 상황에서도 화해를 위한 노력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표1)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연표

긍정적 요소(화해·협력)	부정적 요소(대립·갈등)
1965.6 한일기본조약	
1970.7 新日鉄와 日本鋼管이 포항제철에 기술 협력	1970.4 요도호사건 인질구출에 '무시당한 노력'
1972 한일의원간친회	1971.4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
1973 한국, 고교 선택필수과목 일본어 제2외국어로	1973.8 김대중 납치사건
1975.6 한일의원연맹 결성	1974.4 민청학련사건(일본인 2명 스파이 용의로 체포)
	1974.8 문세광 사건(육영수 사망)
	1979.10 박정희 암살
	1979.12 전두환 군사 쿠데타
1983.1 中曾根 방한. 한일공동성명. 대한경제협력 합의	1980.5 광주 민주화 운동 무력진압
1984 한국, 일본어능력검정시험 개시	1980.9 김대중 사형판결
1984.4 NHK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한글강좌' 개시	1980.9 재일한국인 남성 지문 날인 거부
1984.9 전두환 공식 방일, 천황 '오고토바'	1982.6 <u>역사교과서</u> 검정 문제
1988.9 서울올림픽	1984. 8 大島渚 '바카야로!'발언
1989.1 한국, 해외여행 자유화	1985.8 나카소네수상 <u>야스쿠니</u> 참배
	1986.5 제2차 역사교과서문제
	1986.7 藤尾 문상 <u>한일병합</u> 발언
	1988.4 奥野 장관 <u>침략부정</u> 발언(표 참조)
1990.1 아시아나항공 서울 - 도쿄 취항	1991.12 한국의 <u>위안부</u> 일본정부에 보상 요구제소
1990.5 천황, '통석의 염'	1992.1 수요 집회 시작
1992.1 宮沢 수상 방한, 위안부 문제 사죄	1992 한국, UN지명표준화 회의에서 <u>동해 호칭</u> 문제 제기
1993.6 일본, 제1회 한글능력검정시험 실시	1994.5 永野 법상, <u>침략전쟁 부정</u> 발언
1993.8 河野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8 桜井 환경청장 <u>침략전쟁 부정</u> 발언
1993.11 細川 수상 방한, 창씨개명 등 식민지 지배 사죄	1995.6 渡辺 부총리, <u>한일병합</u> 발언
1995. 3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	1995.6 奥野 전법상, <u>침략전쟁 부정</u> 발언
1995.7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1995. 8 일본 국회의 '부전결의' 난항 끝에 애매한 문장
1995.8 村山 수상 담화, '통절한 반성과 진심으로 사죄' 표명	1995.8 島村 문상, 침략전쟁 정의에 의문
1995.11 村山수상, 사죄 친서	1995.8 서울 조선총독부 청사 해체 개시
1996. 5 한일월드컵 공동개최 결정	1995.10 김영삼, "일본은 남북통일을 방해"
1996.6 橋本 수상 방한, 창씨개명, 위안부 사죄 표명	1995.10 江藤 총무처장관, <u>식민지 지배</u> 발언
1997.12 한국 IMF위기에 일본 협력 증가	1995.11 村山 수상의 한국병합 합법 발언에 한국정부 항의
1998.10 김대중 방일, 한일공동선언 발표, 小淵 수상과 일본대중문화 단계적 개방에 합의	1996.4 한국 <u>독도에</u> 항만시설 건설 착공
1999.3 小淵 방한, 한일경제 아젠더 21	1996.6 奥野, 위안부 부정
1999.4 한일 위킹홀리데이 개시	1997.1 梶山 관방상 교과서 위안부 기술 비판

1999.7 한국, 일본제품 수입규제 전면 철폐 1999.9 제2차 문화개방 1999.11 일본영화 '러브레터' 한국 개봉	1998.7 中川 농수산상 위안부 기술에 의문
2000.1 『쉬리』 일본 개봉 2000.4 외국인등록증 지문날인제도 폐지 2000.6 제3차 문화개방 2001.1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군 희생 2001.11 김포 - 하네다(1일 4편) 운항개시 2001.10 한일수뇌회담에서 역사문제 공동연 구 검토 합의 2001.12 천황, 「ゆかり」 발언 2002 한일국민교류의 해. 840건 이상의 각 종 기념사업 실시 2002.1 일본, 센터시험과목에 한국어 신설 2002.5~6 월드컵 공동개최 2002.6 김대중 방일. 한일공동미래프로젝트 실시에 합의 2003.1 청소년과 스포츠 교류를 위한 한일공 동미래프로젝트 출범 2003.4 KBS드라마 대히트, 은사마 붓 2003.6 노무현 방일, 한일수뇌공동성명 발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향한 한일협력 기반의 구축' 발표 2003.6 '민주당한일의원교류위원회' 2004.1 제4차 문화개방 2005 한일우정의 해. 문화, 스포츠, 학술 분야 에서 700건 이상의 교류사업 실시 2005.6 한일공동역사교과서 최종보고서 2006.3 한국인 단기체재 비자면제 실시 결정 2006.9 '조선통신사교류의 회' 2008.4 이명박 방일 '한일신시대' 결의 확인 2008.8 이명박 방일(홋카이도) 2008.12 이명박 방일(후쿠오카) 2009.1 아소 총리 방한 2009.6 이명박 방일 2009.10 鳩山 총리 방한 2010.8 菅 총리 담화, 조선왕실 의궤 인도 2010.11 이명박 방일(横浜), 한일도서협정 2011.5 이명박 방일 2011.12 이명박 방일(京都)	2001.5 '새역모'교과서 한국정부 재수정 요구 2001.8 小泉 수상 야스쿠니 참배 2003.6 麻生정조회장 창씨개명 발언 2003.10 石原도지사, 한국병합은 조선이 원해 2004.1 小泉 수상 4번째 야스쿠니 참배 2004.1 한국, 독도 우표 발행, 일본 항의 2004.2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특별법 2004.3 친일진상규명법 2005.3 島根県 의회에서 '竹島の 날' 조례 발표. 2005.5 小泉 수상, 야스쿠니 참배에 타국이 간 섭할 문제가 아니라고 국회 발언 2005.6 中山 문상, 위안부 발언 2007.1 '재특회'발족(130명) 2007.3 安倍 수상, 위안부 입증자료 없어 2007.3 下村 관방부상, 위안부 부정 2010.3 枝野행정쇄신상, 한국 식민지화는 역사 적 필연 2011.9 이명박, 노다 총리에게 위안부 문제 해 결 촉구 2011.12 위안부 소녀상 2012.3 安倍 수상, 침략의 정의 발언 2012.6 위안부소녀상 말뚝 사건 2012.7 일본대사관에 트럭 들진 2012.8 이명박 독도방문, 천황 사죄 발언 2012.12 아베총리 2기 2013.2 박근혜 대통령 취임 2013. '재특회'회원 반한시위 확산 2013.5 橋下 오사카 시장 위안부 발언 2014.1 安倍 수상 야스쿠니 참배 2014.1 NHK회장 위안부 발언, 하시모토 오사 카시장 지지발언 2014.3 관방장관 위안부 부정 발언

(표2)1986년 이후 일본 정치인의 역사인식 관련 문제발언

년월	발언 정치인	내용	비고
1986.9	藤尾正文相	한국병합은 양국의 합의로 성립	과면
1988.4	興野誠亮	침략전쟁 부정	사임
1989.2	竹下登首相	침략전쟁은 후세의 역사가가 판단	
1994.5	永野茂門法相	침략전쟁 부정, 남경사건은 조작	발언 철회
1994.8	桜井新環境相	침략전쟁 부정	발언 철회, 사임
1994.10	橋本通信相	침략전쟁 정의에 의문	
1995.6.3	渡辺美智男外相	한국병합은 원만하게 체결	부분 취소, 사과
1995.6.4	奥野誠亮元法相	위안부 강제연행 부정, 침략전쟁 부정	
1995.8	島村宜伸文相	침략전쟁 정의에 의문	
1995.10	村山富市首相	한국병합은 국제법상 유효하게 체결	김영삼에게 서한 송부
1995.11	江藤隆美總務相	식민지 시혜론, 한국병합은 정당	발언 취소
1996.6	奥野誠亮元法相	위안부 부정	
1997.1	梶山静六官房相	중학교 교과서 위안부 기술 비판	
1998.7	中川昭一農水産相	위안부 교과서 기술에 의문	발언 철회
2003.6	麻生太郎政調会長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	사과
2003.10	石原慎太郎都知事	한국병합은 조선인이 원한 것	
2004.11	中山成彬文科相	교과서 위안부 기술 감소는 다행	사과
2005.6	"	위안부 문제 발언	
2005.11	麻生太郎外相	야스쿠니문제 거론은 한국과 중국 뿐	
2007.3	安倍晋三首相	위안부 강제성 입증 자료 없다	
2007.3	下村博文官房副相	위안부 부정	
2010.3	枝野幸男	한반도의 식민지화는 역사적 필연	사과
2011.8	野田善彦首相	A급 전범은 전쟁 범죄인이 아니다	
2012.3	安倍首相	침략의 정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2013.5	橋下徹大阪市長	위안부 부정 발언	
2013.7	安倍首相	침략의 정의는 역사가의 판단	

II.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상호인식

1. 상대국에 대한 스테레오타입

일본인이 한국에 대하여 연상하는 것

1984		1988		1990		1997	
김치, 한국요리	8	서울올림픽	8	일본의 침략	8	경제발전	15
민족의상, 문화	8	한국 음식	8	한국 음식	8	국제적 지위향상	13
일본이 침략	5	민족의상, 문화	5	싫다	8	빈부격차	13
서울올림픽	4	경제발전	5	경제발전	6	전통을 중시	12
싫다	3	대한항공기사건	4	서울올림픽	4	활기 넘친다	10
	28		30		34		63

한국인이 일본에 대하여 연상하는 것

1984		1988		1990		1997	
36년간의 고통	31	36년간의 생각	29	식민지통치	33	과거사 반성부족	32
교활, 천박	10	경제대국	11	경제발전	16	경제대국	24
36년간의 기억	8	교활	5	이해 타산적	14	높은 기술수준	17
경제적 번영	8	경제적 동물	4	적대감, 반일감정	10	경제적 침략	10
혐오감	5	불쾌, 이기적	3	전쟁(침략)	8	군사대국화	6
	62		52		82		89

-아사히신문 여론조사 참조. 자유기술 상위 5항목

-1997년은 회답카드에서 1가지 선택

*일본의 한국관(자료 2~3)

- 한국에 대하여 연상하는 것은 대체로 표면적이며 감정을 수반하지 않는 옅은 인상
- 특별한 감정이 없는 무관심, 우월감
-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바라보는 일본인의 여유

*한국의 일본관(자료 4~6)

- 식민지 지배의 역사에 의거한 부정적인 이미지, 반일감정의 강한 표현
- 일본에 대한 반감과 동시에 경제대국, 기술선진국, 근면, 예의, 청결 등에 대한 선망
- 일본의 한국관이 군사적 이미지에서 점차 경제발전으로 이동하는데 비하여 한국의 일본관은 일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

2.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아사히신문·동아일보 공동여론조사(자료7~9)

- 공통적으로 상대에 대한 친근감이 약하다
- 한국은 '싫다'가 명확하지만 일본은 '어느 쪽도 아니다'라는 애매한 대답이 다수
- 1984년 이후 일본의 매스컴에서 한국보도가 현격하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 1984년, 1988년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보다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은 수치를 보인다. 90년 조사부터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일본보다 낮은 수치
- 1995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싫다' 역대 최고치(69%). 배경에 일본 국회에서의 '부전결의' 난항, 역사인식에 관한 정치가들의 '망언', 김영삼의 대일본 강경발언
-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전반까지는 약간의 호전. 대중문화 개방, 한류 붐, 월드컵 공동개최 등. 2001년 양국 모두 친근감 상승, 이후 모두 하락
- 2001년 조사에서 일본은 한국이 싫어하는 나라 최상위(자료 9)
- 일본의 좋아하는 나라 순위 : 미국 - 한국 - 중국 - 러시아 - 북한
- 한국의 좋아하는 나라 순위 : 미국 - 중국 - 북한 - 러시아 - 일본
- 2000년대 중반 악화되었다가 2010년대 초반 다시 호전(자료 10)
- 2014년 양국 모두 호감도 저하. 일본의 한국 '싫다' 최고치(자료 7), 한국의 일본 '좋다' 최저치(자료 8)

*한국병합 100년 아사히·동아일보 공동여론조사(2010.6, 자료10)

- 2010년 ‘相手国は身近’의 항목에서 일본은 55%, 한국은 42%
-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는 여전히 커다란 낙차를 보이면서도 양국관계에 관해서는 낙관적
- 양국 간의 문화교류, 인적 교류 확대의 반영. 2013년 소폭 감소(자료 11)

*2012년 이후 국민감정 악화(2013.5, 자료 12)

- 일본의 한국에 대한 : ‘좋은 인상’ 31% < ‘나쁜 인상’ 37%
- 한국의 일본에 대한 : ‘좋은 인상’ 12% < ‘나쁜 인상’ 77%

*일본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본 한국에 대한 친근감 추이(2013.10, 자료 13)

- 1980~81 ↓ 광주민주화운동 무력 진압
- 1985 ↑ 조사를 개시한 1978년 이래 처음으로 친근감 45.4% > 느끼지 않아 45.2%
- 1986 ↓ 야스쿠니문제
- 1988 ↑ 서울 올림픽
- 1989~1995 ↓ 거둬드는 ‘사죄’와 ‘반발’, 야스쿠니, 위안부, 역사교과서, 동해호칭, 독도
- 1997~2011 ↑ 도중에 약간의 하락이 있지만 거의 50% 이상유지. 월드컵 공동개최, 일본문화개방, 한류 붐, 다양한 문화 교류
- 2012~ ↓ 18포인트 급락. 이명박의 독도방문, 천황 사죄발언, 박근혜의 대일정책
- 친근감의 변화는 한일관계 현상과 연동

3. 한일관계의 현상과 비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아사히신문 여론조사(자료 15~16)

- 공통적으로 ‘잘되고 있다’ 감소하고 ‘그렇지 않다’는 증가하는 경향
-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과거 6회 조사 가운데 최고(86%)
- 2005년은 양국 모두 더욱 악화. 과거 조사 가운데 최악(한국 93%, 일본 61%)
- 배경에 역사교과서, 야스쿠니,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의 날’ 제정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자료 17~18)

- 현재 한일관계 ‘좋다’+‘좋은 편이다’ 2011년까지 일본은 과반수이상, 한국은 과반수이하
- 2011은 2005년에 비하여 양국 모두 부정적 인상 다소 감소.
- 2011의 한일관계 낙관적 전망에 대해서 일본은 2P감소, 한국은 10P 증가(자료 18)

*2013년 11월 19일 산케이신문/FNN 여론조사

- 한국에서 전시 중 한국인 징용에 대하여 일본 기업에 배상지불을 명령하는 판결 속출하는 가운데 여론조사에서는 외교와 경제생활 상대로서 ‘한국은 신용할 수 없다’가 69.3%, ‘신뢰할 수 있다’는 16.8%
- 한국 사법의 판단에 대해서 ‘납득 할 수 없다’ 82.7%, ‘납득할 수 있다’ 5.6%. ‘배상금 지불해서는 안 된다’ 79.2%

- 일본 넷트 댓글 : 하루빨리 국교 단절을, 조선인은 거짓말쟁이에 도둑놈, 후지에서 이 정도면 실체는 더 높을 것, 한국은 일본에 기생하면서 성립하고 있는 나라...
- 한국의 댓글 : 일본의 역사인식 수준은 이 정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라,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거꾸로 간다. 수천 년 간 대륙의 침략을 막아준 우리에게 은혜도 모르고...

*2014년 요미우리 · 한국일보 공동여론조사(자료 19~20)

- 2012~2014년 일본의 한국 인식 급속하게 악화. 친근감 하락과 상통
- 상대국에 대한 신뢰도는 양국 모두 압도적 다수가 비관적. 일본의 경우 과거 최악
-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사회에서의 일본 비판(일본 '부적절' 89%, 한국 '적절' 77%)
- 양국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한국 90%, 일본 83%. 상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대조

*기타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

- YTN/아산정책연구원공동조사(2014.2.26): 한일관계 '개선해야' 68.5%, '반대' 27.3%
- 한국갤럽 여론조사(2014.3.18) : '개선해야' 75%, '반대 21%

4. 상대국의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관심도

*한류 붐(2003~2010) 이전과 이후

- 1990년 조사에서 상대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일본 보다 한국이 높다(자료 22)
- 한류 붐 이후 한국 영화, 드라마에 대한 일본의 관심 증가(자료 23, 24)
- 한류 붐이 상호인식의 변화에 미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커다란 영향은 없다

*상대국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는 사람(2010.6 NHK/KBS 공동조사, 자유회답)

- 일본 : 배용준 1위(일본은 연예인, 정치가, 재계인)
- 한국 : 이토 히로부미 1위(한국은 역사적 인물, 운동선수 등)
- 2010년 아사히 조사(자료 25)

*상대국의 대통령(수상)에 대한 관심도(자료 26, 27)

- 일본인의 관심도에 비하여 한국인이 낮다
- 한국인의 맹목적인 반일감정의 반영

5. 역사인식의 겹

*천황의 '오고토바'(29~30)

- 한국과 일본의 인식 차
- 천황의 '오고토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는 없음. 오히려 상호 인식 차이를 확인

*식민지 지배를 포함한 과거의 역사문제(자료 31)

- 한국의 압도적인 다수가 '미청산'으로 응답. 2014년은 과거 최고 97%
- 일본에서도 과반수가 '미청산'으로 응답
- 일본에서 '사죄할 필요가 있다' 30% 응답(자료 32)
- 요미우리 조사에서도 일본의 사죄 '불충분' 41%(자료 33)
- 독도문제, 야스쿠니 문제에 대한 대칭적 인식(자료 34)

*유효한 해결책은?

- 일본과 한국의 인식 차(자료 36~37)
-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주요 관심사(자료 38~39)

Ⅲ. 전망

*교류와 갈등의 공존

- 양국의 외교 관계 악화와는 무관하게 경제, 사회적인 교류는 계속
- 한류 붐은 일단락 한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간의 문화교류도 계속
- 한일관계의 '악화'에만 주목하여 대립 면에 촉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영토 분쟁, 야스쿠니, 역사교과서 문제, 위안부, 강제동원 등의 보상 문제

- 양국의 정치정세,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 분출될 가능성 상존

*국제정세, 북한문제, 남북통일 문제

- 일본의 '협한, 협중, 협북', 한국의 '친북, 친중, 반일'
- 중국, 북한의 동향과 미국의 역할

*반복되는 역사적 기념일과 재생되는 역사의 기억

- 매년 8월 15일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 : '광복절'과 '종전기념일'
- 2013.9 :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 90년. 특별법 준비 중(2023년 100년)
- 2015.8 : '전후 70년'과 '해방 70년', '러일전쟁' 100년, 국교정상화 70년,
- 2019.3 : 3.1운동 100년

*한국의 문제점

- 정치인들의 표면적 '반일'
- 1985년 '천황탄생일' 서울 일본대사관저에서의 기념 파티에 정재계 요인 다수 참석
같은 날 충남 예산에서 윤봉길의사 기념식에는 무관심
- 언론의 획일적인 '반일' 보도
- 일본의 정치, 사회, 문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노력 부족. 맹목적인 '반일'
- 개인으로서의 호감, 동경과 '집단'으로서의 '반일'

* 일본의 문제점

- 일본 정부의 역사적 자료의 공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 한국의 '과거사 청산'의 일련의 움직임과 대조
- 한국인의 맹목적인 '반일'과 대조적인 한국에 대한 애매한 자기표현
- 과거의 역사에 대한 피해자 의식
- 식민지 지배라는 특수한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
- 한국병합 100년 여론조사(아사히, 2010.6.10)에서 한국병합과 식민지 지배 몰랐다 26%(20 대는 34%)

*기타

- 재일한국인 문제, 민간징용자 유골 반환 문제, 기타 보상 문제
- 한일 간의 정치 시스템의 차이. 정치 지도자의 리더십의 문제, 정권 말기의 레임덕 현상
- 천황의 방한?

<토론문> 2014.6.21

한일 역사화해를 위한 시도와 좌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한일간의 상호인식을 중심으로-(박진우)

서민교(동국대)

위 발표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현대 한일관계의 추이를 주로 양국의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검토한 논문으로 한일의 “역사화해를 위한 시도와 좌절”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필자가 의도하는 결론이 무엇인지를 잘 표명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의 특징은 먼저 국교정상화 이후의 한일관계에 대해 연표식으로 정리하면서,

- ① 1965년~1980년대 전반기는 한일국교정상화는 이루어졌으나 한일간 상호인식의 ‘불협화음’의 시기
- ② 1983년 정부수립 이후 한국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일본을 공식 방문했던 전두환 정권기의 한일관계의 화해와 협력의 시기(?)
- ③ 1980년대 중반 이후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의 거듭된 ‘사죄’와 ‘망언’으로 인한 ‘반발’의 시기
- ④ 1990년대 일본대중문화 개방으로 비롯되는 상호친근감의 증대와 2000년대에 들어와서의 한류 붐을 거쳐 험한류 붐이 눈에 띄게 되는 현재까지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어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본 상호인식의 변화추세를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을 통해 한일 간에는 교류와 갈등이 공존하면서 여전히 상호간의 역사인식의 갭을 메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게 된다.

위의 발표는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일 간의 상호인식의 추이를 통해 과연 어떠한 역사화해를 위한 노력을 하였고, 또 그것이 현재의 시점에서 왜 ‘좌절’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현상적인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 내지는 논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는 상호인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언론에서의 여론조사의 항목을 살펴보면 과연 일본인들의 정확한 내면의 인식(=혼네)를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러운 점이 느껴진다. (예를 들어 ‘어느 쪽도 아니다’ 등의 항목)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여론조사의 추이가 역사화해를 위한 시도와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느끼게 된다. 시기별로 나타나는 상호인식의 변화라는 현상적인 측면이 역사화해의 어떠한 점을 반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 대통령의 국빈방문이나 올림픽 개최, 월드컵 공동개최 등의 행

사 및 한류 붐에 대한 친근함의 증대, 혹은 적대감의 증대가, 양국 간의 역사화해를 위한 어떠한 시도로서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세 번째로는 역시, 현대 한일 간의 역사화해 시도는 결국 현시점에서 왜 좌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이 단순히 현상론적인 관점에서 나온 결론인지?, 아니면 1965년 이래 50여 년 간에 걸친 한일관계의 추이를 볼 때 한일 간의 역사화해의 시도는 결국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을 취할 경우, 한일 간의 화해는 결국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인지에 대해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발표문의 ‘전망’ 현재적인 시점에서의 문제점들이 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한일 간의 미진한 전후처리 문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그리고 발표자는 ‘좌절’했다고 낙담을 하고 있지만, 정말 한일 간의 역사화해의 가능성이나 ‘동아시아 지역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은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묻고 싶다.

이상입니다.

역사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

하 우 봉 (전북대학교)

1. 他者와 華夷觀

‘自我’와 ‘他者’는 이항대립적인 관계이다. 他者란 문화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정의한다면, ‘문화의 公民權’을 갖지 못한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문화영역에서의 ‘타자’의 사례를 생각해 보면, 서구-비서구, 식민자-피식민자, 근대-전통, 문화-자연, 남성-여성, 백인-흑인, 이성-비합리, 고급문화-저급문화, 보편-특수, 기독교-이방, 회교, 유럽-이슬람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자아’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때로는 의도적으로 ‘타자’를 설정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민족·국가 내부의 차원도 있고 대외관계에서의 타자도 있다. 제국주의시대 유럽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나, 일본에서 단일민족주의론을 강조하기 위해 재일한국인을 타자화하는 것이 좋은 보기이다.

대외관계에서 타자에 대한 인식은 타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세계관·문명관과 같은 주관적 조건이 투사된다. 예컨대 日本觀이라면 인식주체의 가치체계와 일본이라는 인식대상의 복합적 산물이며, 그것과 함께 국제정세와 같은 상황도 작용한다.¹⁾ 따라서 대외관계에서 他者認識은 自我認識과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으며, 민족의식의 反射鏡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한국인은 왕조 초기 자아인식의 확립과정에서 타자를 설정하였다. 그것은 華夷觀의 수용과 小中華意識의 확립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明과 함께 ‘中華’로 설정한 다음 女眞·日本·琉球·東南亞諸國을 ‘夷狄’으로 他者化하였다.

華와 夷는 선진-후진, 문명-야만 등의 대립적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고대·중세·근대의 내셔널리즘 형성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점 서양 근대의 오리엔탈리즘과 다를 바 없다. 자아와 타자를 화이·내외로 구분하는 의식에는 다분히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으며, 자의식의 강화 속에 타자와의 차이성이 강조되고 타자를 소외·배척해 나간다.

그런데 화이관에는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교화시킨다는 포용의 논리도 내포되어 있다.²⁾ 그것은 ‘王化’, ‘德化’, ‘教化’ 등으로 표현되었으며, 때로는 단순한 슬로건이나 대의명분론에 불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화이관 속에 포용과 확산의 논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 向化人 정책도 여기에 바탕을 두었으며, 일본과 여진에 대한 羈縻政策의 명분도 ‘教化’에 두고

1) 장인성, 「근대조선 일본관의 구조와 성격 : 자기·타자·상황의 함수적 표상으로서의 일본관」, 『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고려대 아세아연구소출판부, 2000

2) 酒寄雅志, 「華夷思想の諸相」, 『アジアのなかの日本史 5 - 自意識と相互理解』, 東京大出版會, 1993

있다. 중국인들이 북방유목민들에게 여러 차례 침략과 지배를 당하였지만 결국 漢族으로 다 동화시켜낸 바탕에는 포용과 확대를 지향하는 사상적 장치가 작동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임진왜란 후의 상황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지식인들의 상호인식의 전개양상을 고찰해봄으로써 역사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이라는 주제와 연관해 음미해 보고자 한다.

2. 조선 후기 실학파의 일본인식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주자학적인 화이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관 내지 국제인식을 제창하게 된 데는 西學의 연구와 清代文化에 대한 재인식이 중요계기가 되었다. 서학에 대한 연구는 近畿南人の 핵심인 星湖學派가 중심이 되었고, 청대문화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燕巖學派가 주도하였다. 한편 일본에 대한 재인식과 연구도 시도되었는데, 이 운동을 주도한 학파는 李瀾을 중심으로 한 근기남인계 실학자들이었다.

조선후기의 실학자들은 비록 일본에 사행을 다녀온 바도 없고 대일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조선후기에 있어 일본에 관해 다른 어떤 지식인군보다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1) 이익의 새로운 일본인식

17세기의 일본 관련 저술을 남긴 洪汝河와 許穆의 일본인식은 明·淸 교체 이후 조선의 사상계에 풍미한 조선중심의 화이관 속에서 ‘日本夷狄觀’을 나름대로 체계화하였다. 또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의 일본인식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고, 인식의 수준 역시 낮았으며, 임진왜란 이래의 적개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의 단초를 열었고, 이후 남인계 실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큰 영향을 주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전통적인 일본관도 일부 실학자들 사이에서는 변하게 되었다. 임란 후 1세기가 지나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서 벗어나 임진왜란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객관화할 수 있었고, 통신사행원의 일본사행록에 의해 일본사회의 문물이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위에서 새로운 일본인식을 제창한 인물은 허목의 뒤를 이어 근기남인계의 실학파를 건설한 星湖 李瀾이었다.

이익(1681-1763)은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무관심과 고정관념을 넘어서 일본에 대해 폭넓은 관심을 가지고 일본사회의 실상과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는 『星湖僿說』에서 90여개 항목에 걸쳐 일본에 관해 기술하였고, 『星湖先生全集』에도 상당한 기록을 남겼다. 비록 일본에 관한 체계적인 저술은 아니지만 우선 분량면에 있어서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그 관심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 대한 이와 같은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이익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익의 일본인식을 정리해 보면, 첫째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일본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할 것을 제창하였다. 그는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일본에 관해 무지하고 무관심한 태도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며 일본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역사인식에서 名分보다 時勢를 더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일본에 대한 ‘萬世怨’, ‘九世復讐說’을 부정하면서 임진왜란의 舊怨을 갚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

둘째, 일본의 기술과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당시의 일본이 군사적 강국이며 물산이 풍부하고 무기 등의 제조기술이 조선보다 우수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일본의 문화에 대해서도 부분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일본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그는, “이제 듣건대 일본은 대해 가운데 있어 사방으로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그 기계의 정교함도 배워 익히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니 더욱 당할 수가 없게 되었다.”²⁾ 라고 하여 전반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보았다. 또 철을 제련하는 기술, 축성법 등에 대해서도 일본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었던 조선의 기술수준에 대해 비판하였다.³⁾ 특히 무기의 제조기술에 있어서는 일본이 당시의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평하였다.⁴⁾

일본의 문화수준에 대해서는, “그 백성이 中華를 절실히 사모하여 서적을 많이 발간하고 약간의 시문도 전해 오지만 그래도 村秀才의 미숙한 기미를 면하지 못하였다.”⁵⁾ 라고 하여 전체적인 수준은 아직 낮다고 보았다. 따라서 문화적 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문화교류 내지 전수의 한 방편으로 통신사행의 역할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이익은 일본문화의 발전된 면모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즉, 당시의 일본이 조선에도 없었던 典籍을 풍부히 갖추고 있었다는 점과 인쇄기술이 발전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⁶⁾ 또 1757년에는 안정복으로부터 貝原益軒의 『和漢名數』에 대한 소개를 받은 후, 人性에 있어서 内外의 구별을 부정하면서 일본의 문화도 중화문명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 점은 당시 소중화의식 속에서 일본이적관을 고수하였던 조선의 일반적인 일본인식과는 뚜렷이 구별되는 것이다.

또 주목할 사실은 이익이 조선이 유일한 중화라고 하는 인식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이자 수호자라고 하는 조선중화의식과 노론계의 ‘尊我的 華夷觀’과 구별되는 것이다. 존아성 내지 자존성에서 독자성으로의 변화이다. 이는 당시 18세기 국제정세의 변동을 인정하는 현실성의 반영이자 허구적 명분론의 극복이며, 역사인식상의 객관성의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당시 노론계 지배층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북벌론자들의 승명반청적 국제인식을 통렬히 비판하였다. 이에 대신하여 이른바 清朝肯定論과 일본에 대한 재인식을 제창하였다.

그는 “崇禎紀元後라는 다섯 글자가 전국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가문의 우환이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나라의 근심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당시까지 유행하였던 소중화의식 속의 崇明性을 지적하여 비판하였다.⁷⁾

1) 『성호사설』 권12 人事門 「萬曆恩」

“임진왜란 때 兩陵이 변을 당한 일은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이고, 萬曆 연간에 원병을 보내준 (명의) 은혜는 萬世까지 잊기 어려운 덕이지만 원수는 이미 흔적이 없고 은혜는 갚을 길이 없다.(중략) 왜의 원수에 대해서는 그래도 할 말이 있지만 원흉의 머리는 이미 베었고 남은 무리들은 허물을 고쳤다.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 무기를 풀고 백성을 쉬게 함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중략) 대개 교린이란 오직 친목을 중히 여겨 감정을 안으로 다스리면서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하여 宗社를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時勢에 따라 할 따름이다.”

2) 앞의 책, 권17 인사문 「騎兵」

3) 앞의 책, 권8 인사문 「生財」, 권11 인사문 「倭之守城」

4) 앞의 책, 권5 만물문 「火砲」 「火具」, 권6 만물문 「火箭」

5) 앞의 책, 권9 인사문 「倭僧玄方」

6) 앞의 책, 권17 인사문 「日本忠義」

나아가 그는 당시 지식인들이 淸夷狄觀에 빠져 청나라의 生財와 器用의 발달상황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富國安民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청과의 교류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이익은 청을 이적시하지 않고 ‘중국’으로 인정하자고 하는 청조긍정론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胡亂 이후의 北伐論에 대한 정면비판이었으며 北學論의 선구를 이루는 문제제기였다.

이익은 당시 조선이 접했던 세계에 대해 기존의 禁忌와 道그마를 타파하고 현실적인 안목에 입각하여 인식을 개방하고 확대시켰다. 이 점에서 그는 조선후기 사상계의 선구가 되었으며, 실학이 체계적 학문으로 개화되는 길을 터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세계관은 기존의 자존적 화의이식에서 보다 객관성과 현실성을 획득한 것으로 각 나라의 독자성을 인식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崇明性과 中華主義의 잔재가 탈락되는 것이며 동시에 민족의식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익은 이러한 의식에서 중국과 구분되는 조선의 역사와 문화연구에 주력하였다. 正統論의 한국사에 대한 적용도 여기에 이론적 기반이 있는 것이다.

이익의 상대주의적 세계관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다. 그는 당시 조선지식인들의 일본에 대한 무관심과 고정관념을 넘어 일본사회의 실상과 변화양상에 주목하였다. 그는 통신사들을 통해 수입되었던 일본서적을 보고는 그들의 장점과 변화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그는 임진왜란 이래 유지되어 왔던 적개심과 日本夷狄觀에 탈피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일본을 연구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은 조선후기 대일인식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다.

한편 이익은 한일관계의 바람직한 위상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제시에 노력을 기울였다. 즉 그는 임진왜란을 비롯한 한일관계사의 정리에 심혈을 기울였고, 당시의 한일관계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면서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한 대일관계의 강화책을 제시하였다.

그는 당시 일본이 군사적으로 강성하여 언제든지 재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는 평화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을 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만큼 그는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일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점은 교린체제의 유지와 강화였다. 이를 위해 이익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정신과 의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관점에서 허목이 일본의 역사를 ‘黑齒列傳’으로 편성해 기술한 것에 대해 “일본은 우리의 이웃나라이므로 마땅히 ‘日本世家’로 해야 한다.”고 비판하였다.⁸⁾ 통신사행에 대해서도 당시 일본측에 불평등한 방식을 바꿔 일본사신도 京城까지 오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고, 통신사행의 교류회수도 현재보다 훨씬 늘려서 3년마다 한 번씩 상호방문하는 정기사행으로 바꾸어서 양국의 친선과 문화교류를 더 깊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 이와 같은 이익의 제안은 전통적인 화이적 명분론이나 감정

7) 동시에 明에 대해 『星湖僿說類選』 「吳三桂」에서는 “명이 천하사람들에게 虐毒하였으므로 명이 망할 때에도 천하에서 다시 명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였고, 「崇禎皇帝」에서는 명태조를 진시황에 비유하면서 그의 학정을 비난하였다. 그는 또 북벌론의 비현실성을 비판하면서 사대관계의 기본목적이 국가를 보존하기 위한 정책임을 강조하였다. 『성호사설』 인사문 「華夷之辨」에서 명이 성립한 후로 화이의 구분이 더욱 심해졌으며, 강약의 세를 고려하지 않고 排淸정책을 쓴 것이 큰 잘못이라고 비판하였다. 「萬曆恩」에서는 “만일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돌진해 민중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가 멸망하는 데까지 이르면 그것을 어찌 이치라고 하겠는가” 라고 주장하였다.

8) 『성호사설』 권18 經史門 「日本史」

적 차원에서 벗어나 평등과 誠信의 자세로 일본과의 관계를 맺어나가야 한다는 그의 인식의 구체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2) 정약용의 일본인식

茶山 丁若鏞(1762-1836)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를 살았던 인물로 당색은 기호계 남인이다. 사상적으로 볼 때 그는 성호학파의 학맥을 계승하였으며 북학과 실학자들 과도 교류하였고, 그 이전의 실학의 제 유파의 사상을 흡수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대외관에 있어서도 이익, 안정복의 민족주의적 관념과 북학과 실학자들의 개방적 세계관을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통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인식에 있어서 정약용은 특히 이익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이는데, 일본의 기술·제도·문화수준 등에 대해 선배 실학자들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언급하였으며 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일본 古學派 儒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그에 따른 일본문화에 대한 인식은 아주 독특하다. 정약용의 일본에 관한 저술로는 『日本考』·『備禦考』·『民堡議』·『論語古今注』 등을 비롯하여 詩文集에도 적지 않은 기록을 남기고 있다.

정약용의 일본인식의 특징으로는 우선 객관적 관점 위에서 일본사회와 문물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는 명분론적인 관념과 전통적인 일본관에서 벗어나 일본의 문물을 보려고 하였으며, 국제정치의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기술과 문화관을 보면, 그는 일본의 기술문명과 문화수준, 나아가 사회제도의 특성과 발전된 면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 장점은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약용은 당시 일본의 기술수준에 대해서, “일본이 옛날에는 우리나라보다 기술수준이 낮았으나 당시에 이르러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기술도입을 한 결과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그 기술수준이 중국과 대등하게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¹⁰⁾ 특히 무기면에 있어서 조선과 일본의 차이는 현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¹¹⁾

한편 문화면에 있어서도 정약용은 일본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면서 특히 일본유학의 발전을 지적하였다.

“돌이켜 보건대 일본은 본래 백제를 통하여 서적을 얻어보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몽매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江蘇, 浙江지방과 직접 교역을 하면서부터 중국의 좋은 책을 사가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한다. 또 일본에는 과거제도의 폐단이 없었으므로 지금에 와서는 그들의 학문이 우리나라를 능가하게 되었으니 심히 부끄러운 일이다.”¹²⁾

“일본은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들이 이르는 바 古學先生인 伊藤氏의 글과 荻先生, 太宰純 등이 논한 경전해석을 읽어 보니 모두가 그 수준이 찬연하였다. 이것을 통해 볼 때 일본은 이제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 논의한 바에 간혹

9) 앞의 책, 권9 인사문 「倭僧玄方」

즉, 당시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의 수도까지 가서 접대를 받은 반면 일본의 사신은 경성까지 오지 못하고 부산에서 접대하였던 제도와 조선의 통신사가 일본으로부터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서야 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익은 그것이 일본에 대한 올바른 誠信의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10) 『與猶堂全書』 시문집 권11 「技藝論 3」, 상동 권12 「日本論 2」

11) 앞의 책, 시문집 권11 「軍器論 2」

12) 앞의 책, 시문집 권21 「示二兒」

왜곡된 것도 있지만 일본의 문화적 분위기가 성숙되어 있음에 틀림없다. (중략) 문화가 우세하게 되면 군사적인 침략과 같은 경거망동을 하지는 않는다. 저 몇사람 유학자들의 경전과 예에 대해 논의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 나라에는 반드시 예의를 숭상하고 먼 장래까지 고려하는 인물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이제 침략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¹³⁾

정약용은 일본의 기술과 유교문화에 대해 그들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 수준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정약용은 고학과 유학자들의 경전주석을 보면서 그들의 탈주자학 내지 반주자학적 경서 해석에 대해 상당히 공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것은 정약용이 깊이 모색하고 있었던 방향이었던 것이다. 일본 고학과 유학자들의 논어 주석에 공감한 나머지 그는 일본유학의 전반적인 수준, 그리고 일본사회의 유교화 수준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나아가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는 1801년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중 일본 고학과 유학자의 저술을 본격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자신의 『論語古今註』에 그들의 학설을 소개하였다. 그가 『논어고금주』에서 인용한 고학과 유학자의 주석은 伊藤仁齋 3개소, 荻生徂徠 50개소, 太宰春臺 148개소인데 이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숫자이다. 내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정약용은 그들의 논어 주석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였다. 유사점으로는 탈주자학적 ‘古學’의 지향, 『논어』를 현실 정치와 사회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규범을 제시해 주는 경세학서로 이해하고자 한 점을 들 수 있다. 한편 양자는 주자학과 성리학에 대한 태도와 입장에 있어 일정한 차이를 노정했으며, 人性論과 民에 대한 관념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정약용은 고학과 유학자들의 학설에 대해 수용보다는 비판한 점이 훨씬 많았다. 그러나 훈고·고증적인 측면에서는 그들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보인다.¹⁴⁾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실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의 폭이 보다 넓어지면서 문화적인 데로 옮겨가는 경향이 발견된다. 정약용과 한치윤 외에 북학과 실학자인 이덕무, 김정희에게서도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의 학문적 지향이나 개인적 특성에도 기인하겠지만 당시의 시대적 조건에도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는 안정되었고, 또 청과 일본의 문물이 발전함에 따라 종래의 화이적 명분론 내지 反清, 反日의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은 설득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화이관의 탈피를 주창하던 실학자들은 일본의 문화적인 변모와 발전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관도 객관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해 가기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일본인식이 심화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의 재침가능성에 대한 조선지식인의 위구심은 유지되었고, 일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에 따라 재침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의 제시와 함께 일본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시도되었다.

3. 에도(江戶)시대 일본인의 임진왜란 이해와 한국 인식

1)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

임진왜란에 대한 일본의 인식을 살펴보면 예상외로 단순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게

13) 앞의 책, 시문집 권12 「일본론 1」

14) 이에 관해서는 하우봉, 「정약용의 일본유학 연구」, 『한국문화』 9,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8 참조.

된다. 우선 제대로 된 正史의 기록이 없다. 德川幕府에서는 이 전쟁에 대해 공식적인 역사를 편찬하지 않았다.¹⁵⁾ 현재에도 임진왜란에 관한 일본의 사료에는 연대기적 자료가 없으며 고문서자료 등을 연대기로 편찬하는 『大日本史料』에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자료는 참전한 大名들의 藩에 의해 후대에 만들어진 기록들이다. 이들 기록물들은 거의 모두 전쟁에서 선조들의 무훈담이나 공적을 찬양하는 입장에서 기술하였다. 이 전쟁의 의미나 豊臣秀吉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¹⁶⁾ 그 결과 대다수의 일본인은 이 전쟁에 대해 일본의 ‘武威’를 해외에 떨친 쾌거라고만 막연하게 인식하였다. 그것이 서민들에게 영합하여 문학작품으로 형상화되었다. 에도시대 일본의 자타인식으로 형성되는 ‘일본형 화이관’의 중요한 근거로서 ‘무위’를 내세우는데, 그것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에서 확립된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살펴보면, 에도시대 전기 일부 유학자를 중심으로 비판이 있었다. 예컨대 藤原惺窩, 林羅山, 木下順庵 등의 주자학자들은 히데요시의 해외정복의 무모함을 비판하였다.¹⁷⁾ 貝原益軒은 1695년 일본에서 간행된 『懲毖錄』의 서문에서 “히데요시가 조선을 친 것은 5가지의 용병(義兵, 應兵, 貪兵, 驕兵, 忿兵) 가운데 탐병이며, 교병과 분병을 겸한 것으로서 군자가 이용하는 의병, 응병은 아니다. 이는 하늘의 법도[天道]가 싫어하는 일이며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라고 비판하였다. 상당히 객관적이며 일본의 패배를 냉정하게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對馬藩에서 조선외교를 담당하면서 誠信外交論을 주장하였던 雨森芳洲는 『隣好始末物語』에서 秀吉의 행위는 명분 없는 무모한 전쟁[‘武名の師’]이라고 비판하면서 전쟁의 참혹함과 비참함을 고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또 막부의 공식적인 견해도 아니었다. 도쿠가와막부에서 간행한 것으로 임진왜란에 연관된 자료로는 1812년에 편찬된 『寛政重修諸家譜』를 들 수 있다. 이것은 1,520권에 달하는 방대한 다이묘들의 계보기록인데, 임진왜란 시 그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된 임진왜란에 관한 기사는 대부분의 경우 승리와 공로를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에 관한 막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노코멘트’라고 볼 수 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신이 이 전쟁에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판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18세기 초반 막부의 관리이자 대표적인 지식인인 新井白石의 경우에도 『讀史餘論』에서 히데요시정권에 대해 비판적으로 평하였지만, 그것은 국내정치에 관해서일 뿐 임진왜란에 관해서는 비판하지 않았다. 柳成龍의 『懲毖錄』에는 임진왜란의 교훈을 얻기 위해 조선군의 패배와 내부의 혼란상 등에 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대부분 승리한 사실만이 무훈담처럼 기록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전쟁이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부 지식인들의 비판도 에도시대 후기에 이르면 크게 바뀐다. 18후반 國學者와 海防論者들은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을 ‘偉業’으로 칭송하였다. 국학자 本居宣長은 “히데요시는 황국일본의 광명을 조선과 중국에까지 빛내었다”고 평가하였다. 해방론자 林子平은 히데요시의 조

15) 宮嶋博史, 「근세 일본의 조선인식 - 임진왜란의 기억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식교류와 역사기억』, 동북아역사재단 주최 국제학술회의, 2008

16) 宮嶋博史, 앞의 논문, 190-191쪽

17) 上垣外憲一, 「日本にとっての文祿・慶長の役」, 『季刊 青丘』, 11, 1992

선정벌은 神功皇后의 三韓征伐 이래의 武德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체로 막부말기에는 해외에 武威를 떨친 쾌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수였다. 임진왜란에 참전한 長州藩과 薩摩藩이 주도한 明治維新 이후에는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는 더욱 고양되었다. 이 시기 조선침략론[‘征韓論’]의 전개와 함께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은 ‘중국적 세계질서의 일본관’을 지향한 대륙옹비의 선구적 업적으로 칭송되었다.

요컨대 일본에서는 이 전쟁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승리한 무훈담만 역사기록으로 축적되면서 마치 승리한 전쟁처럼 인식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외에 일본의 무위를 떨친 위업으로 칭송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에도시대에 이 전쟁에 관한 철저한 비판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초래된 결과이다. 가해자의 기억상실 내지 무관심과 피해자의 절실한 기억 간의 격차는 크다는 일반론적인 현상이 여기에도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전쟁에 관한 역사기록의 결여와 비판의식의 결핍은 300년 후 같은 세력에 의해 또다시 침략전쟁으로 되풀이되었다.

2) 한국 인식

(1) 17세기 유학자의 한국관

① 藤原惺窩

후지와라 세이카(1561-1619)는 근세 일본 주자학의 祖宗격인 인물이다. 그에 의해 일본 유학은 儒·佛龔合에서 분리로, 漢·唐儒學에서 朱子學으로 한 단계 비약하게 되었다. 그런데 세이카의 배후에는 조선의 유학자 姜沆(1567-1618)이 있었다. 강항은 被虜人으로서 일본에 잡혀와 있던 중 당시 불교와 주자학 사이에서 사상적 모색을 하고 있었던 세이카가 유학자로서 독립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세이카는 휘하에 林羅山·松永尺五·那波活所·堀杏庵 등 많은 준재를 배출하여 일본유학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四書五經倭訓』 등의 저서를 남겼다.

세이카는 이와 같이 조선유학과 깊은 관계를 가지며 자신들의 학문을 형성해 갔다. 세이카는 德川家康에게 강의했을 때, 조선의 유학자 복장인 深衣를 입었고 조선판 한문서적을 교재로 해서 강의했다고 한다. 그는 제자 林羅山이 막부로 出仕할 때, 退溪 李滉(1501-1570)의 『天命圖說』을 반드시 읽고 숙지하도록 당부할 만큼 퇴계의 유학을 존송하였다. 또 세이카는 “중국제도와 조선의 예를 아주 좋아하여 의복음식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중국과 조선의 것을 모방하려고 하니 비록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인이 아니었다.”¹⁸⁾라고 할 정도로 조선의 문화를 존송하였다.

② 林羅山

德川家康의 측근으로서 활약했던 하야시 라잔(1583-1657)은 13세부터 교토의 建仁寺에 들어가 불교 교리를 배웠는데 뒤에 宋學을 신봉하여 朱子の 저서에 경도되었다. 그 후 藤原惺窩를 알게 되었고 그의 소개에 의해 1605년 德川家康을 알현하고 출사하였다.

라잔은 스승인 세이카보다 한층 강하게 조선의 학문에 심취되었다. 라잔은 家康 書庫의 유학서적을 비롯해 역사·문학·의학·병학 등의 조선 서적을 탐독하였다. 라잔은 특히 퇴계 이황의 사상과 학설이 담긴 『天命圖說』이나 『延平答問』·『朱子書節要』 등의 저서를 통해 퇴계학을 수용하였다.¹⁹⁾ 그런데 그의 한국관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조선문화에

18)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19) 17세기 전반기의 유학자로서는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이외에 山崎闇齋(1618-1682)와 그의 제자

대한 존숭감이다. 퇴계학을 비롯한 조선의 유학에 대한 존숭감 외에 통신사행원과의 문화교류를 통해 조선문화에 대한 관심과 우호감을 많이 표현하였다.²⁰⁾ 이와 대조적으로 1617년(광해군 9)에 내방했던 제2차 회담겸쇄환사에 관해 기록한 『朝鮮通信使來貢記』에서는 조선을 조공국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물론 대내용이기는 하지만 여기서 그는 조선을 예부터 일본의 西蕃이라고 규정한 大寶律令(701년) 이래의 인식을 계승하였다.

③ 雨森芳洲

아메노모리 호슈(1668-1755)는 近江國 출신이지만 1685년 에도로 나와 木下順菴의 문하로 들어갔고, 1689년 對馬藩의 江戸藩邸에 관리로 종사하였다. 1691년 처음으로 대마도에 상륙했으며, 이어 나가사키에 두 차례 유학하였다. 1703년부터 초량 왜관으로 건너가 3년간 머물렀다.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구체성을 가지고 형성되었던 것은 이 시기이며, 한국어입문서인 『交隣須知』를 저술한 것도 이 무렵이다. 그 후에도 세 차례 조선에 건너왔다. 호슈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이해하였으며 넓은 아시아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 속에 조일 교섭의 실무에도 숙달했던 전문가였다.

그의 한국관을 가장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것은 1728년에 저술한 『交隣提醒』이다. 조선 외교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자세, 한국인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다.

“조선과 교류하고 접할 때의 법도는 제일 먼저 인정과 일의 형세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 내용의 조리를 분별하고 여러 가지의 일을 이해하여야 한다. 조리를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역관들과 상인들은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일에 따라 각각 구별하고 사려를 더해 알맞게 대응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²¹⁾

조선과의 교섭에서 그 인정과 일의 형세를 알고 또 일을 하는 방향의 줄거리 내지 조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가 반복해서 강조하였던 것은 양국의 풍습·이해·문화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웃나라라는 안이한 관념을 버리고 분쟁과 오해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상대방에 대한 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다.²²⁾ 한편 조선의 사회와 풍속에 대해서는, “학교와 역관의 시설이 조선의 전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다. 경서를 존중하고 학문을 숭상하므로 풍속이 엄숙하다”라고 소개하면서 학문과 禮樂 등이 진보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들로 구성된 이른바 南學派도 있다. 山崎闇齋의 제자인 佐藤直方(1650-1719), 그의 제자인 稻葉迂齋(1684-1760) 및 그의 아들 稻葉默齋(1732-1799), 稻葉迂齋의 문인인 村上玉水(1733-1776) 등 山崎闇齋學派의 후예들은 퇴계의 『自省錄』과 관련서적을 읽고 학문 본연의 자세를 인식하였다며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하였다.

20) 1643년(인조 21)의 통신사행시 그는 三使에게 書狀을 올렸고, 제술관 朴安期와는 필담창화를 하였다. 특히 종사관 申濡로부터 「松竹梅三幅贊」을 받고 감격하여 “보배로운 물건입니다. 또 오언율시의 회답을 보내주셨으니 크나큰 행복 중의 행복입니다”(『林羅山文集』 제14권 「謝朝雄國信使申竹堂」)라고 하였다. 통신사행원과 문화교류를 하면서 느낀 감동과 序·詩를 보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으로 넘치고 있다.

21) 『芳洲外交關係資料·書翰集』, 雨森芳洲全書 三, 關西大學 東西學術研究所 資料集刊 13.

22) 『橘廳茶話』에서도 “사리를 깊이 알려고 하면 반드시 중국과 한국의 언어와 풍속을 알 필요가 있다. 그러한 연후에야 헛되고 막히는 바가 없을 것이며, 책을 읽어도 헛되지 않고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중국·조선의 언어와 풍속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상과 같이 호슈의 한국관은 책상 위의 공허한 이론과는 달리 아주 현실적이고 실리적이다. 그의 기본개념은 조선과 일본의 교류에는 조선의 인정·풍속·문화를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며 그것을 결여한 채 헛되이 일본의 논리를 주장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를 저해하는 것이라는 사고였다.²³⁾

④ 態沢蕃山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德川幕府의 교학인 주자학에 저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던 陽明學者나 古學者의 경우에는 한국관에 있어서도 종래와는 다른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양명학자인 구마자와 반잔(1619-1691)은 “중국 주변에 야만의 여러 민족이 있고 그 가운데에 중화가 있어서 북쪽에는 北狄, 서쪽에는 西戎, 남쪽에는 南蠻, 동쪽에는 東夷의 여러 나라 및 여러 민족이 있다. 東夷에는 아홉 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덟 번째가 倭이다. 그리고 九夷 가운데서 조선·琉球·일본은 이적이지만 우수하다. 더욱이 이 삼국 중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中夏의 밖 四海 안에서는 일본에 버금가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잔은 일본이 가장 우수한 이유로 일본 천황계의 시조인 天照大神과 초대 人皇인 神武天皇의 존재에서 찾았다.

또 반잔이 조선을 일본보다 열등하게 인식하는 근거로 고대 『日本書紀』에 나오는 神功后의 三韓征伐說話와 任那日本府說에 두고 있다. 반잔의 이러한 인식은 후대의 지식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막부의 대외정책 결정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반잔은 東夷 중에서 일본이 가장 우수하고 그 다음으로 조선을 들었다. 일본중심적 화이론의 틀 속에서나마 조선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⑤ 山鹿素行

반잔에 이어 일본 중심주의의 견해를 명확하게 밝힌 사상가는 古學者 내지 兵學者인 야마가 소코(1622-1685)이다. 그는 일본이야 말로 중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을 어느 정도 인정한 반잔과는 달리 철저한 일본중심주의자이며, 조선차별주의자였다.

소코는 당시의 조선에 대해, “조선은 두 번이나 나라가 망하고 네 번이나 왕조가 바뀐 나라로 文武 모두 일본에는 미치지 못하는데, 秀吉의 조선정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였다. 소코는 『日本書紀』에 나오는 신화나 설화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 신공황후의 삼한정벌을 찬미하면서 “조선·신라·백제는 모두 일본의 藩臣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고려도 일본(‘本朝’)의 속국이었는데 文과 武 모두 중국(‘外朝’)에 비할 바가 못 되고, 더욱이 일본(‘中華’)과는 비교도 안 된다”²⁴⁾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선은 일본의 속국으로 일본(‘中朝’)의 文武를 두려워한다는 견해를 나타내었다. 즉 소코는 『日本書紀』의 조선멸시관을 일본 근세에 재생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다. 나아가 그는 일본은 천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

23) 이 시기에 雨森芳洲 외에도 조선멸시관에서 탈피한 사상가가 있었다. 예컨대 西川如見(1648-1724)은 『華夷通商考』에서 조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나라는 유교의 도를 존송하는 일은 중화보다 낮고, 유교의 古法 가운데 중국에서 끊어진 것이 이 나라에 남아있다. 사람과 자연이 질박하여 오래 지속되어 온 나라이며, 의복과 말이 중국인과 다르다.” 如見은 나가사키에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식견을 넓혔으며, 국제교역이라는 경제적·실천적 입장에서 외국의 풍속을 관찰하였다. 이 시기까지는 멸시관이 일부에서 제기되었지만 조선문화에 대한 존송감이 여전히 강하였음을 보여준다. 실제 통신사행에 대한 일본인들의 열광적인 분위기는 이때가 절정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 『謫居童問』 卷五 「治平」

문에 예의가 바르고 萬世一系의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萬國에 우수한 나라라는 일본국수주의의 원형을 성립시켰다. 즉 소코는 중화는 중국이 아니며 일본이야말로 중화라는 일본중심주의를 주장하였던 최초의 인물이다.

이상 에도시대 초기 대표적인 유학자의 한국관을 고찰해보았다. 藤原惺窩는 퇴계를 비롯한 조선성리학에 깊은 존숭감을 가졌다. 林羅山의 경우는 정치담당자로서의 입장에서는 우월관의 현양이 있었지만 학문을 매개로 하면 조선통신사행과의 교류에 학자로서의 감동을 나타내었다. 雨森芳洲는 외교실무 경험을 기조로 하여 조선멸시관에 대해 비판하였으며 우호를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제안을 하였다.

그런데 양명학자인 熊澤蕃山과 병학자인 山鹿素行에 이르러서는 양상이 일변하였다. 반잔과 소코가 등장했던 17세기 후반에는 幕藩體制 내부의 모순이 점차 표면화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조선멸시관이 대두되었다는 사실은 시사적이다. 소코의 주자학 비판이 조선에 대한 멸시관과 바로 연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德川幕府는 조선과 상호존중이라는 기본정신을 지속하려는 입장이 있었지만 反幕府勢力은 이와 반대로 反朝鮮的인 태도를 쉽게 가질 수 있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반막부적 지향의 정당성을 구하려 했다고도 여겨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그들은 17세기 후반 당시에는 재야의 학자로서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18세기 후반 國學者와 海防論者의 한국 인식

에도시대 후반으로 갈수록 조선멸시관이 점차 강화된다. 18세기 후반에는 幕藩體制의 모순이 현저히 증가하며 위기상황이 이어진다. 그런 가운데 여러 차례의 막부개혁이 진행되고 러시아가 변경에서 위협하는 상황이었다. 이른바 막번체제 해체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이다. 또 통신사행의 접대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① 本居宣長

國學은 幕藩體制의 쇠퇴과정에서 막부의 교학이었던 유학을 비판하는 풍조 속에서 발생하였다. 그래서 유학이 신봉하는 中國學에 반발하며, 古典·古歌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본 고래의 정신을 회복하자고 하는 復古主義를 내세웠다.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는 본래 京都의 堀景山에게서 의술을 배워 의원을 하였으나 1763년부터 본격적인 고전 연구에 몰입하여 『古事記』의 주석을 비롯해 90종 260여 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다.

노리나가의 한국관은 그의 『初山踏』에 표명되어 있다. 大和魂을 가치관의 주제로 고정시키고 이것을 논리화하는 것에 의해 “학문이란 바로 皇國의 학이다”라는 인식방법론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나오는바 “천황은 외국을 다스리신다”라는 논리로 전개되고, 나아가 일본의 신인 天照大御神이 한국의 신인 須佐之男命을 지배한다고 하는 논리로 발전하였다. 『馭戎概言』에서는 “神功皇后가 이 신의 가르침에 따라 스스로 신라를 평정하러 가셨다. 그 왕이 곧 배 앞으로 나와 여러 가지 말로 받들어 모신 이래로 항상 80척의 공물을 바쳐왔다고 한다. 이때 고구려 백제 두 나라도 같이 공물을 바치러 왔다”고 하여 神后傳説을 사실로 수용하였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게 조공하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인식하였다. 그의 학문의 출발점이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있는 이상, 사교의 모든 것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²⁵⁾

25) 이에 대해 小林秀雄는 『本居宣長』에서 “노리나가의 황국의 고대 전설 승배는 狂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경지까지 가 있었다.”고 평하였다.

그는 豊臣秀吉에 의한 한국침략에 대해서도, “조선국을 평정한 그 위세가 만국들과 저 중국의 당나라에까지 점점 더욱더 떨쳐나갔다”고 찬미하였으며, 히데요시를 ‘豊國의 神’이라고 표현하였다. 여하튼 그의 한국관은 국내의 여러 제자들에게 전수되어 국학자의 일반관념으로서 형성되어졌다. 나아가 이것은 막부말기에 이르러 尊王思想과 결합되었고 한국관의 바탕이 되었다.

② 林子平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해방적 견지에 입각해서 한국관이 구체성을 가지고 논쟁되기 시작한 것은 1778년 러시아 선박의 蝦夷地 내항과 통상 요구 등 외압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었다. 이 사건은 막부의 관습적 국제관념과 쇄국정책을 근거로부터 흔들어버린 사건이었다. 이에 따라 대외적 긴장이 고양되면서 가장 이웃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에 관심이 향해졌고 종래의 한국관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것을 제일 먼저 주장했던 인물이 하야시 시헤이(1738-1793)였다.

그는 1765년 28세 때 仙台藩의 内政 전반에 관해 9편 159개 조에 달하는 『富國建議』를 藩主에게 올렸다. 그 뒤 에도와 나가사키에 유학한 이후로 兵學과 지리학을 연구하였다. 에도에 돌아와서는 大槻玄澤·宇田川玄隨·桂川南周 등 뛰어난 蘭學者들과 교류하면서 유럽지식의 흡수에 노력하였다. 그러한 연구의 결실로 나온 것이 1785년에 출간된 『三國通覽圖說』이다.

『三國通覽圖說』에서 그는 조선·琉球·蝦夷의 지리와 풍속을 소개하고 동시에 러시아의 남하에 대비해 예조지역의 개척을 주장하였다. 특히 「序文」의 다음 구절이 주목된다.

“무릇 세 나라는 그 영토가 우리나라에 접하여 있는 실로 이웃나라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귀인·천인·문인·무사 할 것 없이 이 세 나라의 지리를 알아야 한다. 이것을 암기하면 혼란한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 해매거나 의혹되지 않으며, 萬機가 기울고 바뀔 때 힘을 펼 수 있고, 때로는 알아서 즐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정치상황에 따라서 세 나라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도 이 지도를 품에 품을 때에는 세 나라의 지역이 일목요연하고, 눈과 눈썹에 있는 것처럼 태연하게 그 쪽으로 이를 수가 있다.”

‘萬機가 옮겨지고 바뀔 때 힘을 펼 수 있고’, ‘정치상황에 따라 세 나라에 들어갈 경우가 있어도’라는 문장에서 단순히 일본의 방위에 머물지 않고, 이면에 한반도 침략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상은 이미 『부국건의』에도 나타나 있다. 막부말기 조선침략론의 선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는 논리이다.

시헤이의 한국관은 해방적 관점에서 나온 현실적 정치외교론으로서, 막부말기의 조선문제 논의에 채용되었다. 그는 조선연구의 긴급성을 강조하였지만 그의 한국관은 오로지 국방상의 견지에서 조선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것은 한국인식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 일본의 방어를 위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나라라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③ 吉田松陰

조선침략론은 막부말기의 요시다 쇼인에 이르러 더욱 구체화된다. 그는 長州藩士 출신으로 일찌기 山鹿流兵學을 배웠고 서양진법에도 관심을 가졌다. 그의 생애에 큰 전기가 되었

던 것은 21세 때 九州의 平戶와 長崎에로의 유학이었다. 히라도 체재 50여 일 동안에는 80책, 나가사키에서의 20여 일 동안에는 26책의 유럽관계 서적을 독과하였다 한다. 그 후 에도로 유학을 하였고, 洋學을 배우기 위해 佐久間象山(1811-1864)에게 입문하였다. 이후의 그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동북지방 여행의 강행, 藩으로부터의 추방, 狄에서의 근신, 1854년 3월 미국으로의 밀항 미수, 野山獄에의 幽囚, 출옥한 후 松下村塾의 개설, 막부의 老中 間部詮勝의 요격 기도, 1859년 옥중에서의 참수로 마무리되었다. 그의 29년에 걸친 생애는 실로 파란만장한 실천과 사유의 연속이었다.

1854년에 저술한 『幽囚錄』의 「自序」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옛 고대에는 신하로 따르지 않는 곳이 있으면 海内와 海外를 막론하고 동서로 정벌하여 반드시 강경하게 제거해 버렸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러시아, 미국이 맹렬하게 밀려오는데 관리는 구차하게 편의적으로 대처한다. (중략) 흔히 국가를 지키고 유지하는 길은 먼저 나아가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열강의 침략에 대비하지 않고 많은 異國의 오랑캐들이 모여 싸우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국가는 멸망한다. (중략) 조선과 만주는 서로 연해 있으며, 神州의 서북쪽에 모두 바다를 사이에 둔 가까운 나라이다.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옛날 우리나라에 신하로 복속했는데도 지금은 점점 거만해졌다. 무엇보다도 그 나라의 풍속과 종교 등은 상세히 알아서 그것을 다시 수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쇼인 역시 전통적인 일본서기적 사관을 주장하였다. 그는 ‘韓國臣屬說’을 실증하기 위해 『幽囚錄』의 끝부분에 崇神天皇시대의 任那의 조공에서부터 神功后的 신라 정복, 백제의 조공, 仁德天皇시대의 신라 정복, 雄略天皇 8년(464)의 고구려 정벌, 孝德天皇 2년(651)의 신라의 조공 등 『일본서기』와 『고사기』에 나오는 한반도 삼국의 조공상황의 개요를 열거하였다.

쇼인의 한국인식은 종래의 전통적인 조공국사관에 머물지 않고 서구열강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위기의식에 상승되어 그들과의 우호관계 회복, 또는 점령에 의해, 말하자면 서구열강으로부터 손실보상의 대상지로서의 위치로 바뀌어졌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明治維新을 추진한 문하생들에 의해 明治時代 대조선외교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여하튼 막부말기의 攘夷論과 國防論의 골자 속에 ‘먼저 조선을 정복함’이 필수조건과 같이 내장되어 있는 것도 이 시기 대외의식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였다.

에도시대 후반기의 국학자와 막부말기 해방론자들의 한국관은 에도시대 초기의 유학자들과 달리 조선멸시관을 내세운 熊澤蕃山과 山鹿素行의 한국관을 계승하였다.

국학자들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전승에 바탕을 두고 조선이 옛날부터 일본의 속국이었다는 인식을 주창하였다. 이러한 국학자의 조선 멸시관은 비과학적이고 왜곡된 역사인식이었지만 점차 확대되면서 지배적인 한국관으로 파급되어갔다.

해방론자들 또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나오는바 전설 속의 한반도 침략을 찬미하면서 任那日本府說 및 朝鮮蕃國說을 주장하였다. 조선에 대한 저항 내지 대항의식에 머물던 조선멸시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막부말기 하야시 시헤이에 이르러서는 러시아의 남하와 그에 대비한 海防論이 주장되는 가운데 ‘조선침략론’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침략론은 요시다 쇼인에 이르면 더욱 구체화되었다. 그는 조선은 옛날 일본의 신하로 복종했는데 지금은 거만해졌다고 하며, 교역에서 러시아에게 잃은 것을 조선과 만주에서 보상받고, 국력을 키워 동아시아 제국을 침략하고 서구에게 잃은 것을 조선에

서 다시 찾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였다. 해방론자들에게 조선은 國學에서 연유한 비 과학적인 국제인식과 『日本書紀』에서 규정 되었던 복속국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통신사행의 왕래에 의해 형성되었던 200년간의 조일평화의 교류는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다.

4. 양국간 상호인식의 양상과 추이

조선 후기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의 전개양상과 추이를 정리해봄으로써 맺고자 한다.

임진왜란으로 한국인들의 일본인식은 구체화되었지만 당연하게도 최악으로 바뀌었다. 7년간의 전쟁체험은 한국인들의 뇌리에 지울 수 없이 각인되었다. 일본은 ‘不具戴天의 원수’로서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는 ‘萬世怨’, ‘九世復讐說’이 일반화되었으며 일본인에 대한 호칭은 ‘왜놈(倭奴)’이 되었다. 이러한 대일감정은 조선의 민중들에게 일종의 유전자처럼 계승되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본관의 원형이 된 셈이다. 전쟁을 통해 형성된 ‘輕生好殺’·‘잔인’·‘교활’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강화되었으며, 17세기에 풍미한 소중화의식에 의해 일본이적관과 대일적개심은 고정화되어 갔다. 17세기 통신사행원들의 일본사행록에 보면 유교적 이념에 맞지 않는 일본의 풍습은 모두 ‘오랑캐의 습속’으로 이해되었다.²⁶⁾

일본에 대한 재인식의 주장이 나온 것은 18세기 중반 이익에 의해서였다. 그는 기존의 화이관에서 벗어나 일본을 연구하고 이해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화상대주의에 입각한 개방적 일본인식의 제창이었다. 이에 따라 18세기 후반에 이르러서는 일부 실학자들이 일본의 문화에 대해 연구를 하였고, 일본관도 객관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해 갔다.²⁷⁾ 이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재야의 학자들로서 정부의 대일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1811년 통신사행이 두절된 이후 19세기 이래에는 일본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본에서도 한국인식에 큰 변화의 계기가 된 것은 임진왜란이었다. 에도시대 임진왜란에 대한 평가를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다. 德川幕府는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침략전쟁’이라고 비판하였다. 林羅山, 新井白石, 雨森芳洲, 貝原益軒 등 유학자들이나 참전한 從軍僧들도 같은 입장이었다. 종군승인 慶念이 저술한 『朝鮮日日記』에는 전쟁의 비참함이 절실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편 『太閤記』, 『朝鮮征伐記』 등에는 무훈담을 중심으로 戰勝意識이 강조되었다. 本居宣長 등 國學者들의 경우 ‘神功后의 三韓征伐을 계승한 快舉’라고 예찬하였다. 막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식은 뿌리 깊게 지속되었으며 민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明治維新 직후 豊臣秀吉을 모신 豊國神社가 공식적으로 부활되었으며 豊臣秀吉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바뀌었다.²⁸⁾

26) 하우봉, 「17세기 지식인의 일본관」, 『동아연구』 17, 1989.

27)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일본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저술도 대폭 늘어났다. 조선후기에는 임난시 피로인들의 수기가 몇 편 있으며, 통신사행원에 의한 일본사행록이 40여 편이나 되고 원중거의 『和國志』, 이덕무의 『蜻蛉國志』, 정약용의 『日本考』와 같은 日本國誌적인 저술도 나온다(하우봉, 「새로 발견된 일본사행록들 - 『海行摠載』의 보충과 관련하여」, 『역사학보』 112, 1986). 이것들은 상당한 수준을 지니고 있는데 통신사행을 통한 한일교류의 성과이기도 하다.

28) 이에 대해서는 三鬼清一郎, 「江戸時代における朝鮮役の評価について」(『歴史評論』 373, 1981) 및 崔官, 『文祿・慶長の役』(講談社, 1994) 참조.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과 같이 에도시대의 한국인식도 양면적이었으며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조선에 대한 문화적 존중감이다. 임란 이후 조선성리학, 금속활자, 도자기 등 조선의 문물이 전래된바 유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조선문화에 대한 활발한 관심과 함께 존경심을 가지게 되었다.²⁹⁾ 藤原惺窩, 林羅山, 山崎闇齋 등 에도 초기의 유학자들은 조선의 유학, 특히 퇴계의 사상을 매우 존중하였다. 18세기 중반 에도막부의 최고 학부인 昌平黌의 교원이자 ‘寬政三學士’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古賀精里(1750-1817)도 퇴계를 존중하는 등 그 흐름은 막부말기까지 이어졌다.

각 藩에 사로잡혀있던 조선유학자들이 지역에서의 유학 발전에 발판을 마련하였다. 德島藩의 鄭希得, 佐賀藩의 洪浩然, 紀伊藩의 李眞榮·全直父子, 熊本藩의 高本紫明 등이 그들이다. 그들은 피로인이었지만 차별받거나 멸시받지 않고 유학자로서 존중받았으며, 藩主들로부터 각별한 예우를 받았고, 藩의 유학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한편 17세기 후반부터 각 藩에 藩校가 설립되면서 주자학이 채택되었다. 그 중에서도 熊本藩의 藩校인 時習館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熊本學派는 퇴계학을 중심으로 한 조선성리학을 존신하였다 大塚退野(1677-1750)와 藪孤山(1735-1802)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그들의 문하로서 막부말기와 明治시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상가인 横井小楠(1809-1869), 元田永孚(1818-1891) 등도 퇴계학을 존중하였고, 明治期の 教育勅語에 반영하였다.³⁰⁾

이 시기 일본인의 한국관은 경의와 우호적 인식이 많았다. 통신사행에 대한 그들의 열렬한 반응은 그러한 분위기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조선인 학자 및 문화에 대한 존경은 통신사의 방일 시 일본 유학자나 문인들이 보여준 태도에서 잘 드러난다. 그 광경은 통신사행원들이 남긴 사행록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지방 유학자나 문인들의 통신사행원에 대한 태도는 존경이라기보다는 숭배에 가까운 것이었다고 한다.³¹⁾ 中井竹山이 『草茅危言』에서 비판하기 위해 묘사한 광경을 보면, 이러한 상황은 18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풍조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은 조선을 문화적 선진국으로 인식하고 존경하는 관념이 상당히 폭넓게,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藤原貞幹의 『衝口發』에 나타나 있는 한국관도 특기할 만하다. 그는 神國史觀을 부정하고 고대 이래 한반도로부터의 문화적 영향을 긍정하고 존중감을 나타내어 국학자 本居宣長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또 하나의 흐름은 日本型華夷意識³²⁾에 바탕한 朝鮮蔑視觀이다. 18세기 들어 조선의 서적 유출 금지 조치와 일본의 중국과의 직접적 교류, 德川幕府의 官學이었던 주자학의 쇠퇴와 古學·陽明學·國學·蘭學의 상대적 발전 등의 변화 속에 조선에 대한 관심과 존경심은 점차 사라지고 대신 『日本書紀』 이래의 전통적인 朝鮮蕃國觀이 되살아났다. 유학과 안에서 水戶學派와 新井白石 등에서 짝이 보이고 양명학자인 熊澤蕃山·安藤昌益 등은 보다 강하게 조선멸시관을 드러내었다. 국학자들에 이르면 고전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특한 일본문화론을 제창함과 동시에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의거해 朝鮮蕃國史觀을 체계화하였다.

에도시대 조선멸시관의 근거는 고대 史書의 설화에 바탕을 둔 조선번국관과 임진왜란 시 武威의 과시이다. 豊臣秀吉의 침략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유학자들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29) 旗田巍, 『日本人の朝鮮觀』, 勁草書房, 1969.

30) 阿部吉雄, 『日本朱子學と朝鮮』, 東京大學出版會, 1965.

31) 松田甲, 「毛利氏の朝鮮聘使接待」, 『日鮮史話』 제4편, 1931.

32) 일본형화이의식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荒野泰典, 『近世日本と東アジア』, 東京大學出版會, 1988 참조.

비판하였지만 兵學者나 國學者에 이르러서는 찬성하는 자들도 생긴다. 그런데 儒學者, 國學者, 海防論者, 幕末의 조선침략론자(‘征韓論者’)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본서기적 사관이다. 『일본서기』에 나오는바 神功后的 三韓征伐神話와 任那日本府說, 三國의 朝貢에 근거한 三韓西蕃論 등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두 인정하였다. 史書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의심하지 않고 ‘역사적 사실’로 수용하였던 것이다.

조선후기 한일 양국의 세계관의 전개양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朝鮮中華主義³³⁾와 日本型 華夷觀念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중화주의가 유교적 기준에서의 문화우월성에 기초한 것이라면, 일본형 화이관념은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과 천황 중심의 神國意識이 그 기반이다. 중국에서의 통일왕조가 명에서 청으로 바뀐 후 전통적인 화이관이 무너지고, 각 나라마다 각기 지역 내의 ‘소중화’를 자처하는 이른바 ‘華夷變態的 상황’이 전개되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움직임 보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일본형 화이관의 기준은 상당히 독특하고 이질적이다. 그런데 조선중화주의와 일본형 화이의식에는 모두 自民族中心主義의 독선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반된 대외인식에 의해 표면적 선린우호와 달리 내면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이 누적되어 갔다. 이 의식의 괴리와 허구성은 19세기 후반 힘의 균형이 무너지자 바로 현실화되었다.

시기적인 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에 의해 일본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간데 비해 일본은 더욱 민족적인 성격이 강화되어 갔다. 19세기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경우 개방적인 인식이 후퇴하고 고식적인 대외관으로 변화해 간 반면, 일본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갔다. 하여튼 일본에서는 19세기 이래 한국연구가 활발해지는데 비해 한국에서는 오히려 무관심해지고 연구도 쇠퇴해가는 경향을 볼 수 있어 아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 시기 일본의 연구가 정치·군사적 관점에서 나온 ‘침략대상지로서의 한국연구’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33) 조선중화주의 개념과 성격에 관해서는 정옥자의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일지사, 1998) 및 하우봉의 「조선후기 실학파의 대외인식」(『한국실학의 새로운 모색』, 경인문화사, 2001) 참조.

하우봉, 「역사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

장순순(가천대 아시아문화연구소)

○ 논문의 의의

- 발표자께서는 오랫동안 조선시대와 에도시대 지식인의 상호인식에 관한 연구를 해왔고, 그 결과 다수의 논저를 발표해 왔다. 대표적인 관련 저서로는 『조선후기 실학자의 일본관 연구』(1989), 『朝鮮實學者の近世日本』(2001),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2006), 『朝鮮王朝時代の世界觀と日本認識』(2008), 『한국과 일본: 상호인식의 역사와 미래』(2012) 등이 있다.

- 본 연구는 조선후기 실학자인 성호 이익과 다산 정약용을 중심으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일본인식에 대한 객관화 과정과, 동시대인 에도시대 일본인 지식인들의 임진왜란과 한국인식 실태 즉, 상호인식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인식에서 타자 이해와 관용’이라는 주제를 다룬 것이다.

- 20세기 전반기에 전개되었던 한일간의 불행한 역사가 여전히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바람직한 양국 관계를 저해하고 있는 현재의 한일관계 속에서 근세시기 양국 지식인들의 상호간의 타자이해와 관용의 자세에 관한 연구는 매우 유의미한 시도이며, 본 연구가 갖는 의의라고 할 것이다.

○ 질문 및 의견

①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일본에 사행으로 다녀온 적도 없고 대일정책을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지만, 일본에 관해 다른 어떤 지식인군보다도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일본에 관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고 하였다. 그리고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일본에 대한 적개심에서 벗어나 임진왜란을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서 객관화 할 수 있게 되었고, 통신사행원의 사행록을 통해 일본사회의 문물이 소개되면서 이익과 같은 사람이 새로운 일본인식을 제창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발표자는 다른 연구에서 1763년 계미통신사행의 서기로 수행한 원중거와 성대중은 귀국 후 각각 「승사록」, 『화국지』와 『일본록』이라는 사행록을 남겼으며, 원중거의 『화국지』는 홍대용, 박지원, 이덕부, 박제가, 유득공, 이석우 등 북학과 실학자의 일본관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뿐만 아니라 18세기 말 19세기 전반기 실학자들의 일본 인식을 보면 원중거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본사회의 문물을 소개했던 통신사행에 직접 참여했던 인물군에서 변화된 일본관을 찾아볼 수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가요?

②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실학자들의 일본에 대한 관심의 폭이 보다 넓어지면서 문화적인 데로 옮겨가는 경향이 발견되는데, 정약용과 한치윤 외에 북학과 실학자인 이덕무와 김정희에게서도 그러한 면모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일본관 내지

일본인식은 이익과 정약용의 그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③ 본 발표에서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에 관한 시기적인 추이를 보면, 한국의 경우 18세기 후반 실학자들에 의해 일본인식이 우호적으로 바뀌어 간데 비해 일본은 정반대의 모습이 보인다. 임진왜란 직후인 17세기 상황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면 18세기에는 조선멸시관이 대두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간적으로 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양국이 이러한 정반대 양상을 보이는 이유나 배경, 그리고 20세기 일제의 한반도 침략이라는 최악의 양국관계의 전개와 관련하여, 본 논문의 제목인 '역사인식에서의 타자 이해와 관용'이라는 관점에서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일본 제국주의 ‘公共性’의 한 단면

-工藤武城의 조선에서의 <儒教-醫療> 탐구를 중심으로 -*

최재목(영남대)/김정곤(영남대)

<목차>
1. 서론
2. 이력 및 조선에서의 활동
3. 의료와 유교 탐색
4. 결론

1. 서언

이 논문은 근대기 조선이라는 식민지 공간에서 이루어졌던 쿠도 타케시로(工藤武城, 1878-?)가 행한 조선에서의 <儒教-醫療> 탐구를 중심으로 일본 제국주의 ‘공공성’의 한 단면을 살펴보는 것이다.

근대 ‘科學知’에 기초한 衛生정책을 포함한 <醫療>의 차원, 그리고 ‘國家知’에 입각한 사회·문화·풍속을 포함한 <教育>의 차원에서 쿠도는 ‘公共 내지 公共性’을 명분으로 조선이란 공간에 확고한 위치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帝國知’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일조한다. 같은 의료-교육이라는 공공성을 표방하지만 속은 그 자리에 제국지를 채워서, 조선을 皇道儒教化·臣民化·內鮮一體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

쿠도는 ‘擔雪’ 혹은 ‘擔雪居士’¹⁾라는 호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1905년 12월경에 식민지 조선의 땅을 밟았다. 1942년 1월에 마지막으로 발표(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된 「隨筆 香港の思ひ出」(『文教の朝鮮』)을 근거로 추정한다면 1940년대 초반까지 조선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가 어떤 계기와 목적을 갖고 조선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그가 구마모토 출신으로서 오즈카 타이야(大塚退野, 1678~1750) 이래의 퇴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하여 조선의 유학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그를 조선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한 지적·혈연적 이유로 추정된다.²⁾



工藤武城(『大京城公職者鑑』京城新聞社)

즉 쿠도는 구마모토 實學堂의 전통인 治國安民·利用厚生·實踐躬行³⁾적인 학문경향을 적극 계승한다. 이것은 당시 제국 일본이 주도하던 아젠다와 합치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행보는 결국 ‘어둠=조선’을 ‘빛=일본’으로 계몽·교화, 편입시켜 內鮮一體를 달성하려는 일본의 근대적 기획의 틀 안에서 있었다고 판단된다. 제국주의 근대적

* 이 논문은 영남대학교 박사후과정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연구 수행중인 미완의 초고임을 밝혀둔다. 따라서 정식 발표 이전의 인용이나 유포를 금지함.

1) 쿠도의 호는 선가(禪家)에서 전해오는 사자숙어인 담설전정(擔雪填井), 담설매정(擔雪埋井), 담설색정(擔雪塞井), 담설전하(擔雪填河) 즉 눈[雪]을 지고 가서 우물 혹은 강을 메우는 것과 같이 한다는 데서 따온 것 같다. 즉 ‘눈으로 우물이나 강을 메운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채워 가면 언제가 이루어진다는 각오로 연구하고 작업을 해나간다는 각오를 밝힌 것 같다.

지식(=帝國知)의 전면을 치장한, 과학-합리라는 명분의 '公共性'은 당시 제국지의 첨단 무기였고, 그런 무기를 소지한 지식인들은 의기양양 식민지 공간에서 활동하기 마련이었다. 이것은 쿠도가 조선에 온 지 이른 시기에 조선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내비친 다음과 같은 글에서 잘 나타난다.

「……地勢上諸強國の間に介在して長らくの悪政事の下にあり國と個人の存立上、信義正道等は自殺の具に過ぎず、唯弱國悪政の民として虚礼、欺瞞、猜疑等は欠くべからざる武器に候……小生は応用医学の一の臨床産科婦人科を専門とし、内房に出入する事甚多く、露骨なる韓人の性質を観察する機会に乏しからず。彼等の怯懦不信、猜疑の性に富み、信賴の美德など乏しきは明らかに此を知るも、生存適合は周囲の關係より茲に至らしめたる遺傳の結果と思へは、実に憫然なる國民に候。されば若し小生の事情韓国に滞在するを許せば、氣長く此遺傳を消滅して、文明の光に浴せしめ、日新医学を可及的早く普及せしめて御恩恵を蒙らしむる方向に導かむこと、願ふは唯此のみに候」(『朝鮮』1908年9月, 「名士の朝鮮觀」 밑줄은 인용자)

이 논문은 매우 시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쿠도다케시로(工藤武城)가 누구이며, 그가 조선에서 어떤 활동을 왜 했는지 밝히고 있는 수준이며,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²⁾

쿠도가 행한 조선에서의 <儒敎-醫療> 탐구는 당시 조선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지식인들의 행태와 차별화된 매우 독특한 것이었다. 이 연구를 통해서 근대기 한국 나아가서 한일간의 <儒敎-醫療>를 합체시켜 사고하던 방식, 그리고 공공성 탐색의 단면을 살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래에서는 쿠도의 <이력과 조선에서의 활동>, <의료와 유교 탐색>으로 나누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이력 및 조선에서의 활동

1) 이력

쿠도 다케시로는 쿠도다다지로(工藤唯次郎)의 장남으로 메이지11(1878)년에 구마모토현(熊本縣)에서 태어나³⁾, 19세가 되는 1897년에 나가사키 의학전문학교(長崎醫學專門學校)

2) 종래 쿠도에 대해 다룬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 심으로」, 『醫史學』 제22권제2호(통권제44호), 대한의사학회, 2013
- 전미경,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 과정을 중심으로」, 『아 시아여성연구』 제49권1호,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10
- 장용경,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여성 주체」, 『역사와 문화』13, 문화사학회, 2007
- 최재목, 「退溪像의 변모-肖像畵를 통해서 본 선비像의 변천에 대한 試論」, 『退溪學報』1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 강해수, 「근대 일본의 이퇴계연구」, 『退溪學論集』(2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3) 그의 본적과 출생연도는 『朝鮮在住内地人実業家人名辞典(第一編)』(朝鮮実業新聞社, 1913)에는 '熊本縣玉名郡伊倉町三', 『在朝鮮内地人紳士人名鑑』(朝鮮公論社, 1917)에는 '熊本縣玉名郡伊倉町'로, 『大京城公職者明鑑』(京城新聞社發行, 1936)에는 '熊本縣玉名郡伊倉村三〇六九'로 되어 있다. 출생연도 또한 앞의 두 책에서는 명치

에 입학하였다.

1901년에는 동향 출신으로 일본 산부인 과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동경제국대학 부인과 교수 하마다 겐타츠(濱田玄達⁴⁾1855~1915)의 조수를 맡는 한편, 외국어학교를 다니기도 했다.

1903년에는 독일로 유학을 떠나, 뷔르츠부르크대학 부인과 교실에 들어가서 다음 해 7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⁵⁾.

1905년 4월에 베를린대학 부인과과로 옮겨, 라틴어, 태생학, 여자비뇨기학을 연구하다가 1905년 12월에 한성병원(漢城病院) 산과부인과 부장에 초빙되어 경성에 오게 되었다.

2년 후인 1907년 11월에 북미창정(北米倉町; 현, 北倉洞)94번지에 <京城婦人病院>을 개업하였다. 1913년7월부터는 2년 남짓, 프랑스 파리대학 퀴리라뎀 연구실에서 수학한다.

이후, 1915년12월에 다시 조선으로 귀국하여 줄곧 경성에서 부인과 1남3녀의 자식들과 함께 경성에 거하면서, 병원을 경영하는 한편 신문과 잡지에 기고 및 저술과 강연활동을 활발히 하였다. 쿠도는 의학을 전공하였으나, 대학에서 의학을 가르치는 학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사립의 개인병원을 경영한 개업의였음에도, 부인 및 여성과 관련된 의학 방면뿐만 아니라, 강연과 저술, 신문·잡지 기고를 통하여 식민지 조선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쿠도의 잡지/신문/저서의 분야별 저술은 168편 정도이다. 이 중에 의료관련 103편(산과부인과(여성관련)분야 71편, 기타 의료분야 32편), 비의료관련 63편(종교/사상/문화 분야46편, 정치/사회/국가 분야17편)이다.

＜쿠도 다케시로(工藤武城) 의학관련 목록＞		
출전(호수)	연월일	제목
『長崎医学専門学校研誦会雑誌』	1905년10월	子宮筋纖維腫性線腫ノ組織的及臨床的研究
『朝鮮』 (2号~8호)	1908년4월~10월(日韓書房)	韓国婦人の研究 (전7회)
『長崎医学専門学校研誦会雑誌』	1910년4월	卵巣皮様囊腫ノ組織發生ノ研究
『朝鮮』 (37号)	1911년3월(朝鮮雜誌社)	儒教及び佛敎が朝鮮医学に及ぼせる影響
『朝鮮』 (41号)	1911년7월(")	生化学より觀たる恋愛
『朝鮮及滿州』 (53号)	1912년6월(")	妊産婦の亡者を弔ふ
『朝鮮及滿州』 (82号)	1914년5월(")	医学より觀たる男女の別
『朝鮮及滿州』 (84号)	1914년7월(")	基督の眼に映じたる生殖觀
『朝鮮及滿州』 (100号)	1915년11월(")	性的方面より觀らる内官
『朝鮮及滿州』 (102号)	1916년1월(")	女子同性慾の猖獗に就て
『朝鮮及滿州』 (113号)	1916년11월(")	長谷川新總督に対する声:衛生機關の問題
『醫學中央雜誌』(제237号)	大正5(1916)醫學中央雜誌社	「再大和民族ノ朝鮮ニ於ケル分娩率ニ就テ」
『朝鮮及滿州』 (145号)	1919년7월(朝鮮及滿洲社)	生物学より見たる世界各国人種の優勢
『朝鮮及滿州』 (155号)	1920년5월(")	各国人口増殖策と我國の婦人病
『警務彙報』(182~187호)	1920년7.8.10.12월(조선경찰협회)	婦人に関する法医学(4회)

12년으로 되어있고, 『大京城公職者明鑑』에는 '明治十一年五月一日生'로 되어 있다.

4) 하마다 겐타츠(濱田玄達)는 安政원년(1855)11월26일에 肥後國里浦村 출생으로, 집안이 대대로 의사를 업으로 하였다. 메이지13년에 동경의대를 졸업하였으며, 구마모토 의학교 교두 및 교장을 역임하였다. 1885년1월에 독일의 스트라스부르크 대학 등에서 5년간 재학하였으며, 산과부인과를 전공하였다. 1888년에 귀국하여 東大敎授가 되었고, 대학내에 産婆養生所를 설립하였다. 메이지24(1891)년에 박사학위 받음. <참고; 石戶頼一 編 『大日本醫家實傳』(明治26)/花房吉太郎·山本源太 編 『日本博士全傳』(博文館, 明治25)>

5) 『大京城公職者明鑑』에는 쿠도가 1904년7월에 의학박사 학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朝鮮在内地人実業家人名辞典(第一編)』에는 1905년3월에 논문을 제출하여 'ドクトルメヂチーネゲルマンカ'의 학위를 받았다고 되어있다.

『警務彙報』(199호)	1921년12월()	婦人科より觀たる婦人の犯罪
『朝鮮及滿州』(170号)	1922년1월(조선급만주사)	手術に対する婦人の態度
『朝鮮及滿州』(173号)	1922년4월()	産兒制限の可否
『朝鮮社會事業』(3권7호)	1923(조선사회사업협회)	施療産院の設立を提唱す
『朝鮮及滿州』(190号)	1923년9월()	婦人科より見たるラジウムの概論と歴史
<<毎日申報>>	1923년11월25~1924년4월6일	難産과 安産(17회연재)
『朝鮮及滿州』(213号)	1925년8월()	性慾變調による女子の殘虐性
『朝鮮及滿州』(216号)	1925년11월()	心中論
『文教の朝鮮』	1926년8월(朝鮮教育會)	自然に親しみ自然に抵抗するが衛生の要諦
『朝鮮及滿州』(232号)	1927년3월(조선급만주사)	女性犯罪としての墮胎
『朝鮮及滿州』(250~251号)	1928년9~10월()	婦人生殖器の反射現象
『文教の朝鮮』	1929년1월(조선경찰협회)	女教員保姆の妊娠中の心得
『朝鮮及滿州』(256号)	1929년3월(조선급만주사)	妊娠と結核
『警務彙報』(277~278호)	1929년5~6월(조선경찰협회)	売笑行為の婦人科学的觀察(2회)
『朝鮮』(제166~7호,169~172호,175호)	1929년3~4월,6월,7~9월,12월(朝鮮總督府)	朝鮮特有の犯罪(7회)
『朝鮮及滿州』(266号)	1930년1월(조선급만주사)	婦人科学上より見たる女性觀
『朝鮮』(제177호-179호)	1930년2월-4월(조선총독부)	朝鮮婦人嬰兒殺害の婦人科学的考察(3회)
『朝鮮及滿州』(270号)	1930년5월(조선급만주사)	世界の種々相と遺伝学
『朝鮮及滿州』(271号)	1930년6월()	女子参政權と分娩率
『朝鮮及滿州』(271号)	1930년6월()	ヒステリーについて
『朝鮮社會事業』(8권5호)	1930(조선사회사업협회)	兒童愛護の根本問題
『朝鮮社會事業』(8권9호)	1930()	婦人科より觀たる人口調制
『文教の朝鮮』	1930년9월(조선교육회)	婦人科より見たる女子の競技
『朝鮮社會事業』(5호)	1931(조선사회사업협회)	婦人科学より觀たる眞の兒童愛護
<<毎日申報>>	1931년4월3~5,7,8일(매일신보사)	암과 라디움(4회)
『朝鮮及滿州』(291号)	1932년2월(조선급만주사)	遺伝と疾病
『朝鮮及滿州』(292,294号)	1932년3,5월()	消毒法に就て(上·下)
『朝鮮及滿州』(299号)	1932년10월()	初生兒に対する注意
『朝鮮及滿州』(301号)	1932년12월()	胎兒の異状
『朝鮮及滿州』(303号)	1933년2월()	人工榮養法
『朝鮮』(제213호-219호)	1933년2월-8월(조선총독부)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7회)
『朝鮮及滿州』(317~9号)	1934년4~6월()	衰老亞細亞の現症と豫後(3회)
『朝鮮及滿州』(323号)	1934년10월()	医学から觀た往古の日鮮關係の一考察
『朝鮮及滿州』(336号)	1935년11월()	婦人科より見た母性保護問題
『朝鮮』(제257호)	1936년10월(조선총독부)	社会婦人科学の觀點より朝鮮婦人の犯罪を論ず
『朝鮮及滿州』(353号)	1937년4월()	都市保健問題と市民農園
『朝鮮及滿州』(354~355号)	1937년5~6월()	医薬の祖神少名昆古那尊と古代の内鮮關係(2회)
『(鮮滿)醫藥時報』제2권(제1호 신년호)	1937-1940(京城:鮮滿醫藥時報社)	『醫學坐右銘』(工藤武城)
<<京城日報>>	1938년4월21~23일	斷種法を縛る是非(3회)

〈쿠도 다케시로(工藤武城)의 비의료 목록〉		
출진(호수)	연월일	제목
『朝鮮』(6号)	1908년8월(日韓書房)	夏の夜
『朝鮮』(23~24号)	1910년1~2월(조선잡지사)	景福宮(2회)
『朝鮮』(34号)	1910년12월	美神の都ワイマールに於ける 兩詩聖
『朝鮮』(35号)	1911년1월	歌劇タンホイゼル
『朝鮮』(42号)	1911년8월	印度の夏
『朝鮮及滿州』(69号)	1913년4월	民団自治政と公民の覚悟
『朝鮮及滿州』(77号)	1913년12월	面白い列国の気分
『朝鮮及滿州』(78号)	1914년1월	北米合衆国民族問題の真相
『朝鮮及滿州』(80号)	1914년3월	民族の植民的移動に関する 科学的所見
『朝鮮及滿州』(81号)	1914년4월	雜感數題
『朝鮮及滿州』(85号)	1914년8월	夏の思い出:宙瑠翡湖畔の綠蔭と牛津大学校庭の涼風
『朝鮮及滿州』(87号)	1914년10월	世界戦と日本に於ける 外国語の将来
『朝鮮及滿州』(89号)	1914년12월	文字を透して見たる 佛蘭西
『朝鮮及滿州』(90号)	1915년1월	グー論
『朝鮮及滿州』(96号)	1915년7월	剪燈夜話

『朝鮮及滿州』 (97号)	1915년8월	人生を如何に觀ろか:人生は苦樂相半ばするものである
『朝鮮及滿州』 (100号)	1915년11월	积尾旭邦を論ず
『朝鮮及滿州』 (112号)	1916년10월	菊花小話
『朝鮮及滿州』 (122号)	1917년8월	暑中と吾輩
『朝鮮及滿州』 (131号)	1918년5월	独逸の春と情趣
『朝鮮及滿州』 (147号)	1919년9월	米国人の所謂朝鮮問題と黒人大殺戮
『朝鮮及滿州』 (149~150号)	1919년11월~12월	平井法学士のヤソ教論を読む(2회)
『朝鮮及滿州』 (152号)	1920년2월	文録役と朝鮮のヤソ教
『朝鮮及滿州』 (166~167号)	1921년8월~9월	若返り法如是觀(2회)
『朝鮮及滿州』 (168号)	1921년11월	积尾君と君の主宰する雑誌
『朝鮮及滿州』 (178号)	1922년9월	先師汲世老大師の事ども
『朝鮮及滿州』 (180~181号)	1922년11월~12월	國際語之構成及其主張(2회)
『朝鮮及滿州』 (198号)	1924년5월	最近の思想運動
『朝鮮及滿州』 (211号)	1925년6월	佛国人の朝鮮統治觀
『朝鮮神宮紀』(横田康 著)	1926(경성:國際情報社)	「春祝朝鮮神宮遷座祭」(工藤武城)
『朝鮮及滿州』 (251호)	1928년10월	菊の話
『朝鮮及滿州』 (252号)	1928년11월	泉石を眺めつつ工藤ドクトルと語る
『朝鮮及滿州』 (255号)	1929년2월	蛇漫談
『朝鮮佛教』(제60호)	1929년5월(조선불교사)	「花祭偶語」
『朝鮮及滿州』(제270호)	1930년5월	花卉を愛する心
『朝鮮及滿州』 (284号)	1931년7월	人類の逆淘汰
『朝鮮及滿州』 (302号)	1933년1월	朝鮮の貢女
『産科と婦人科』	1934년2월(診断と治療社)	「濱田玄達先生の思出話」(工藤武城)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 高田誠二, 藤原一毅	1934년9월(朝鮮事情協会)	工藤武城校閲並序
『京城雜筆』	1936년1~5월호(경성잡필사)	「机邊一瞥」(5회)
『文教の朝鮮』	1936년12월(조선교육회)	教育勅語渙發當時を憶ふ
『朝鮮 都市問題 會議錄』	1936	「保健思想の普及に就て」
『朝鮮の教育研究』	1936년7월(朝鮮初等教育研究会)	撫硯閑話
『朝鮮及滿州』 (359~360号)	1937년10월~11월	時局と人口問題(2회)
『朝鮮及滿州』 (362~363号)	1938년1월~2월	支那を毒せる英国の阿片政策(2회)
『同胞愛』(16권1호~12호)	1938년1,2,4,10,12월	早婚に因る朝鮮の社會相(5회)
『觀光朝鮮』(제2권제6호)	1939(경성:일본여행협회조선지부)	「金剛山」(工藤武城)
『朝鮮鐵道協會會誌』 (19권11호)	1940년	朝鮮の女奴隷制度と其現代に及せる世相
『文教の朝鮮』	1942년1월(조선교육회)	隨筆 香港の思ひ出

工藤武城의 잡지/신문/저서의 분야별 저술 구분(全168)		
의료관련(全103)	산과부인과(여성관련)분야	기타 의료분야
	71	32
비의료관련(全63)	종교/사상/문화 분야	정치/사회/국가 분야
	46	17

*연재의 논문은 횡수대로 계산, 책은 한권에 1로 계산하였음. 내용보다는 제목으로 분류

위의 업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한국부인에 대한 연구」(1908년4월부터 7회 연재) 『朝鮮』(조선잡지사 편)
- 「부인에 관한 법의학」(1920년7월부터 4회 연재) 『警務彙報』(조선총독부경무총감부 편)
- 「조선특유의 범죄」(1929년3월부터 7회 연재) 『朝鮮』(조선총독부 편)
- 「조선부인 영아살해의 부인과학적 고찰」(1930년2월부터 3회 연재) 『朝鮮』(조선총독부 편)
- 「조혼에 따른 조선의 사회상」(1938년1월부터 5회 연재) 『同胞愛』(조선사회사업협회 편)

2) 유학적 계보

쿠도는 퇴계이황(1501~1570)의 필적과 ‘주자서절요’ 및 퇴계 초상화⁶⁾를 소장하고 있을

6) 이에 대해서는 최재목 「退溪像의 변모-肖像畵를 통해서 본 선비像의 변천에 대한 試論」(『退溪學報』13, 영남 퇴계학연구원, 2011) 퇴계관련 논고 참고

정도로 퇴계에 대한 존경과 관심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다.

아울러 쿠도는 『일본의 교육정신과 이퇴계』라는 책의 서문과 교열을 맡을 정도로, 조선유학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구마모토 출신인 쿠도는 『일본의 교육정신과 이퇴계』의 책 서문에서 ‘히고(肥後, 오늘날熊本) 학통’의 계보를 언급하면서 이퇴계의 학풍을 일본에 전한 것이 구마모토의 오즈카 타이야(大塚退野, 名은 久成, 號는寒齋, 孚齋. 1678~1750)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한다.

쿠도 자신이 「나는 서쪽 변경인 肥後의 한촌인 타마나(玉名)에서 태어났다. 향리에 한 석사가 있었는데 타이야(退野) 선생이라 부른다. 나의 아버지는 그 문하의 제자(門弟)였고, 선생 후손의 아이들(孫兒)은 모두 내 동향의 학교 동창들이다」⁷⁾라고 말하였으며, 타이야는 자신의 학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이퇴계의 말에 기초하여, 주자서철요를 읽었다. 가만히 주자가 말하는 바가 여기에 있음을 살펴 얻고 이를 기록하고, 마침내 이것을 마음에 담아 믿고 따른 지 40년, 아직 얻지 못한 바가 있다하더라도 달리 다른 곳에서 구하지 않고, 여기서 이 세상을 마치 고자 한다」(『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 3쪽)

이처럼 구마모토로 전해진 퇴계의 학풍은 그의 제자로 이어졌으며, 구마모토에 유학 온 사즈마 출신의 아카비코 레이(赤彦禮, 호는 海門, 1739~1802)에 의해 사즈마로 전해졌으며, 그 학통에서 육군의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1828~1877), 해군의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1848~1934)로 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하고 있다. 熊本藩의 무사로서 오즈카 타이야를 진정한 유자로 높였던 메이지 유신의 정치가였던 요코이 쇼난(横井小楠, 1809~1869)도 그의 제자인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峯1863~1957)에게 보낸 글에서 자신의 처세의 방침으로써 이퇴계를 근본으로 삼았음을 볼 수가 있다⁸⁾.

또한 메이지 천황의 시강을 맡았던 모토다 나가자네(元田永孚, 호는 東野, 1818~1891)는 ‘퇴계의 正風에 속하는 退野. 深淵의 학통을 본받고자 한다’라는 각오로써 임하였다고 하였다. 막말유신의 대표적인 인물들인 横井小楠(나중에 탈퇴)·元田永孚·이노우에 코와시(井上毅) 이들은 모두 熊本의 藩校時習館 출신들이다. 이들은 한 때 시습관의 교수였던 기노시타 사이탄(木下犀潭, 1805~1867)은 쿠도의 할아버지의 형(즉 대백부)에 해당하고, 문부대신이었던 이노우에 코와시는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郎, 1842~1917, 경성의 죽침정(竹添町)은 그 거주지의 흔적)와 함께 그의 문하였다.

쿠도는 구마모토의 세세이코(濟々巖, 현熊本縣立濟々巖高等學校) 출신이다. 이 학교는 '황실중심, 국가주의'를 건학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창립자는 삿사 토모후사(佐々友房, 1854~1906)이며, 그는 번교 시습관 출신으로 보수 좌막파의 사상 그룹인 '學校黨'에 속해 있던 인물이었다.

구마모토에는 두 개의 사상조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學校黨'으로써, 藩政의 주류인 번교 시습관 출신으로 관념적·비실질적·수구적 입장에 서 있다. 반면 이러한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새롭게 만든 것이 실증성·합리성을 바탕으로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추구하는 것이 '實學黨'이었다. 바로 이 실학당이 오즈카 타이야의 학풍을 이어받고, 이퇴계를 모범으로써 治國安民·利用厚生·實踐躬行의 학문을 중지로 삼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내면을 높이

7)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朝鮮事情協會, 昭和九年), 1~2쪽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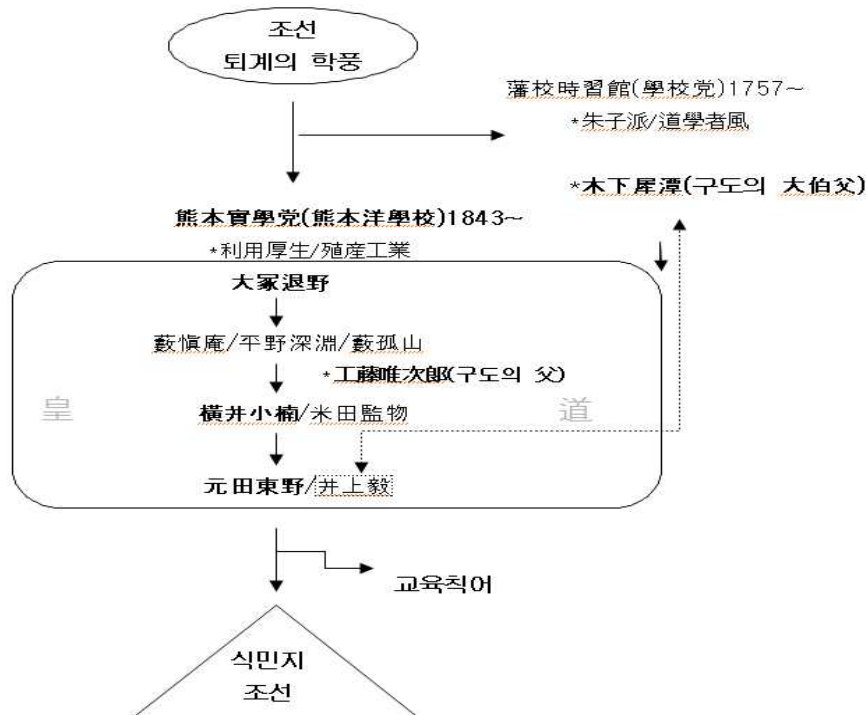
8)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朝鮮事情協會, 昭和九年), 5쪽 참고

고 진실을 찾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⁹⁾.

熊本の 두 潮流	정치	출신	인물	사상경향
學校党	國權派	藩校時習館	佐々友房	保守本流
實學党	民權派	熊本洋學校	大塚退野, 横井小楠, 元田東野	進歩派

이런 계보속에서 쿠도는 보수적 이념의 학교 출신이면서도 '의료'라는 근대의 洋學과 같은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쿠도는 퇴계 학풍을 일본에 전한 오즈카 타이야 문하의 제자였던 그의 아버지, 그리고 구마모토 번교 시습관의 교수였던 그의 큰할아버지(대백부), 이러한 자연과 학연과 인맥의 관계망으로 인하여 쿠도는 자연스럽게 두 쪽(=학교당, 실학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熊本學統의 계보와 工藤武城의 관계】

3) 조선에서의 활동

1922년부터 '조선에 있어서 미술의 발달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회씩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에 동양화 및 서예 작품을 여러 번 출품, 전시하기도 한다¹⁰⁾.

9) 時習館 출신자들에게는 (실용적인 의미에서의) '실학 추구'의 집단이라는 비판적인 의미를 담아서 '실학당'이라 불렀다고 한다. <http://ja.wikipedia.org/wiki/%E5%AE%9F%E5%AD%A6%E5%85%9A> 참고

10) 조선미술전람회는 ①東洋畫 ②西洋畫 및 彫刻 ③書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쿠도는 2회에서 5회(1923~1926년)까지 '東洋畫'와 '書'부분에 출품하였다. 참고; 『朝鮮美術展覽會圖錄』(조선총독부조선미술전

그는 경성 北米倉町(현,北倉洞)의 總代를 맡는 등, 그는 재조선 일본인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으며 활동 범위도 꽤 넓었다.

즉 1926년 국제정보사에서 발행한 『朝鮮神宮紀』의 ‘在鮮名士の感想’에는 사이토 미노루(齋藤實) 총독을 포함한 일곱 사람의 감상문이 나오는데, 그 중 한사람으로 쿠도가 등장한다. 그리고 『朝鮮及滿洲』에는 ‘ヒラヤマ山人’가 쓴 ‘총독부의 인물-학자다운 인물’ 가운데 쿠도에 대한 다음의 소개가 있다.

「▲ドクトルメヂチ-ネ工藤武城は京城婦人病院長として婦人病の醫者として相當の技量を持って居ると言はれて居るが、彼中々の博學者で政治可なり、經濟可なり、哲學可なり、科學可なり、文學可なり、何でも可ならざる無しと云ふ男である。▲朝鮮が如何に出稼的俗吏や一攫千金の山師の集まり場所とは言へ何々學士丈でも數百人を收容して居る土地だから拾ひ集めると學者らしき人物枚挙遑あらずであらうが、今は是にて擱筆する」(ヒラヤマ山人「總督府の人物(其八)-學者らしき人物」, 『朝鮮及滿洲』 第85号, 1914年8月)

그의 동생인 쿠도 다다스케(工藤忠輔, 1882~?, 차남)와 쿠도 시게오(工藤重雄, 1884~?, 3남)도 조선에서 활동하였다. 다다스케는 동경제국대학 법과대학 독법과(獨法科)를 졸업하자마자 조선에 건너와 조선총독부 사법부에서 일 년 남짓 일하다가 1913년 10월에 경성에서 변호사를 개업하였다¹¹⁾. 그는 한때 형 쿠도가 의료소송을 당하였을 때, 소송대리인을 맡기도 하였다¹²⁾. 그도 쿠도 못지않게 식민지 조선사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였다.

참고로 쿠도 다다스케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 「朝鮮に於ける法律教育のプログラム」 『朝鮮』 43号, 1911年9月
- 「新領土に於ける教育家と法曹」 『朝鮮』 44号, 1911年10月
- 「新領土に於ける教育家と法曹」 『朝鮮』 45号, 1911年11月
- 「法律統一史論」 『朝鮮及滿洲』 47号, 1912年1月
- 「法律統一史論」 『朝鮮及滿洲』 48号, 1912年2月
- 「朝鮮に於ける墳墓と法律」 『朝鮮及滿洲』 67号, 1913年2月
- 「法律上の墳墓」 『朝鮮及滿洲』 68号, 1913年3月
- 「國際司法より見たる朝鮮」 『朝鮮及滿洲』 72号, 1913年7月
- 「加州に於ける日本人の社会」 『朝鮮及滿洲』 74号, 1913年9月
- 「波瀾統治に関するカイゼルの演説とタイムスの評論」 『朝鮮及滿洲』 75号, 1913年10月
- 「人種問題に手古摺らぬ国家は無い」 『朝鮮及滿洲』 78号, 1914年1月
- 「独逸に於ける植民地司法統一運動」 『朝鮮及滿洲』 79号, 1914年2月

람회)

11) 『在朝鮮内地人紳士人名鑑』(朝鮮公論社,1917) 참고

12) 모리모토세ツ라는 자궁암종의 환자에 대하여 자궁적출의 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복강 내에 자제를 놔 두었기 때문에 장관벽루공(腸管腹壁瘻孔)이 생기게 되어 소송을 당하였다. 『(국역)고등법원판결록』(제4 권,민사편-II), 법원도서관발행, 2008년. 551~557쪽 참고. <<毎日申報>>(1917.8.3.)에 의하면 森本勝子라는 부인이 의사를 상대로 위자료 오천원을 청구하였으며, 경성지방법원에 사건을 제기한 결과 일심과 이심에서는 원고가 패소하였으나 원고는 고등법원에 상소한 상태이며, 이 문제는 조선에서는 ‘처음보는 일’이며 의학계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았다.

- 「新しい人の新しい文芸修業」 『朝鮮及満州』 80号, 1914年3月
- 「朝鮮に於ける公益法人に就て」 『朝鮮及満州』 83号, 1914年6月
- 「在鮮母国人の迷信を排斥す」 『朝鮮及満州』 84号, 1914年7月
- 「メートル科, 金属線電燈及保険金不受領問題」 『朝鮮及満州』 85号, 1914年8月
- 「法律上より見たる男女の區別」 『朝鮮及満州』 86号, 1914年9月
- 「學問と芸術の自作自給」 『朝鮮及満州』 88号, 1914年11月
- 「京城と都市的設備:私の注文は鎌倉式に」 『朝鮮及満州』 98号, 1915年9月
- 「文献以外にも朝鮮を研究せよ」 『朝鮮及満州』 100号, 1915年11月
- 「白耳義外交文書第二巻を読みて」 『朝鮮及満州』 101号, 1915年12月
- 「大正五年の年頭に臨み寺内伯に注文す-総督が悪いか家来が悪いか」 『朝鮮及満州』 102号, 1916年1月
- 「真面目に支那語支那文を研究せよ」 『朝鮮及満州』 104号, 1916年3月
- 「旭町の三人斬性慾倒錯狂」 『朝鮮及満州』 109号, 1916年8月

이러한 다다스케에 대하여 『朝鮮及満州』 의 ‘京城辯護士界의 人物’에서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工藤忠輔** 熊本の男で京城婦人病院長の工藤ドクトルのお弟である、四十四年帝大獨法科を出で直ちに朝鮮に渡り総督府の司法部に入りしが頗と重用されないので官を辞し弁護士を開業した語學に堪能であるから主として西洋人方面の事件を多く取り扱ふて居る、凡て研究的で亦非常の讀書家である上に多才多能の方で法律以外の政治も文芸にも宗教にも趣味を持って面白い議論と意見を吐く、亦頗る自由意志を尊重し恠氣焔當るべからざるものがある、年も十五年生れと云ふことだから三十一二であるが、始終肺部が弱いので閉口して居る誠に氣の毒なことである」(ヒラヤマ山人「京城弁護士界の人物」, 『朝鮮及満州』 第89号, 1914年12月)

또한 3남인 쿠도 시게오도 역시 법학사(法學士)로서 조선에 건너와, ‘魂의 問題’(毎日申報, 1924년8월15~17일)와 30년 전의 조선의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을 ‘번역’하기도 하였다. 쿠도 시게오가 남긴 글은 다음과 같다.

- 「法医学研究上心得べき点に就て」 『警務彙報』 182号, 1920年7月
- 「京城の社会事業に就ての私の考」 『朝鮮社会事業』 9号, 1923年
- 「漸減せんとする帝國に物價調節の一策を建ず」 『朝鮮及満州』 206号, 1925年1月
- バド・ビショップ著;工藤重雄 訳, 『三十年前の朝鮮』 京城:東亜經濟時報社, 大正14 [1925]
- エドモンド・エーワルシュ著;工藤重雄 訳, 『露西亞帝政没落史:ロマノフ家最後とフボルセビキ ー 未來物語』 <<世界興亡史論;第18卷>>, 平凡社, 昭和7 [1932]
- 工藤重雄 「魂의 問題」 (전3회), <毎日申報>1924年8月15~17日, 毎日申報社

이처럼 쿠도 다케시로는 전공인 부인과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식민지 조선 사회에 개입하였고, 또한 그의 형제들도 상호 협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쿠도는 1924년에 '아시아 민족의 결함과 내선의 융화 및 사상의 선도'등을 목적으로 하는 '同民會'의 평의원에 이름을 올렸고, 1934년에는 '황도정신의 고취와 아시아 제국의 친선단결'을 위한 '조선대아시아협회'의 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³⁾.

많은 재조선 일본인 지식인이 그랬던 것처럼, 쿠도는 조선총독부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자신의 전공지식을 기반으로 식민지 지배 정책 시행의 정당성과 내선일체의 논리를 강화하는데 일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3. 의료와 유교 탐색

1) 의료 방면의 탐색

京城婦人病院을 경영한 쿠도는 잡지와 신문에 병원광고를 실기도 한다. 광고에 <京城婦人病院 附屬 妊娠相談所 産科=癌(암)과 院長 工藤武城 女醫 徐廷兒>로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조선인 女醫 徐廷兒를 한 명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병원에는 부인 환자의 휴양을 위한 시설도 갖춘 규모가 꽤 컸었던 것 같다¹⁴⁾.

아울러 <매일신보>(1913.5.4.)에 의하면 경성부인병원 원장 '工藤武吉'(工藤武城의 오자로 보인다)에 관한 기사가 언급되어 있다. 즉 조선부인이 외국의술에 치료받기를 거부하는 것에 대하여 쿠도는 '환자와 위생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 '조선부인의 병환자를 다수 치료할 목적'으로 진찰권을 발행하여 진찰료와 약값을 반액으로 할인하는 결정을 하여 그 병원장의 '자선심을 사람마다 칭송'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로 보아 병원 경영도 잘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쿠도는 엄청난 양의 글을 남겼다. 이것은 식민지 조선에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을 실행하고 전파하는 일이었다.

그는 몇 권의 단행본도 간행하였다.

1912년에는 '조선부인의 衛生사상의 결핍'으로 인하여 억지죽음이 많은 것을 염려한 '이태왕 전하의 명을 받아' 『婦人の 調攝』이라는 책을 지었다. 여기서 쿠도는 '여러가지 迷信과 부인의 生理에 능통치 못한 까닭에 쓸 때 없이 겁먹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안심케' 하고, '婦人病과 妊娠과 기타 産褥 등에 관한 지식'을 조선에 넓히고자 하였다¹⁵⁾. 이 책은 4권이 나 간행된 『婦人之養生』(1907년)이라는 자신의 일본어 원고의 한글판이었는데, 알기 어려운 의학상의 용어를 피하고 '卑近'하고 '通俗的'으로 쓰여 졌다.

완고한 도학자류의 눈으로 보면 설만(褻慢:외설적이고 오만함)하다고 여겨질 것도 있으나 쿠도는 '본인은 기어이 학문을 충실하게 이에 설명'하고 '세상에 부모되고 남편되고 기혼자와 미혼자를 불문하고, 모든 부인 앞에' 이 책을 바친다(進呈)고 하였다. 여기에는 그가 부인과 의사로서 부인과학적 지식을 펼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조선에서는 부인과 의사는 물론, 산과조차 일손이 부족하며, 변두리의 가정인 경우는 더욱 비참한 것을 알고 일반인과 전문의와 산과가 없는 곳에서도 이 책을 통하여 '가능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가장 이해하기 쉽게 100개에 가까운 삽화를 곁들여 설명하고 있다¹⁶⁾.

또한 쿠도는 총독부 기관지인 <每日申報>의 지면을 통하여 「암과 라디움¹⁷⁾」이라는 제

1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www.history.go.kr/>)와 京城日報(1934.3.3.) 참고

14) 병원 광고와 관련해서는 매일신보 1933년3월23일자, 1934년9월19일자 참고. 경성부인병원의 환자들의 散步場의 모습과 쿠도의 사진이 보인다. 참고로 환자들은 주로 기모노를 입은 일본부인과 서양부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婦人之養生』(1913년)

15) 工藤武城 『婦人の 調攝』 경성부인병원, 大正元年(1912). 인쇄는 東京築地活版製作所에서 하였다.

16) 工藤武城 『婦人之養生』 경성부인병원, 昭和3년(1928), '第四版序' 참고

17) <每日申報>, 1931년4월3~8일(5회연재)

목으로 조선부인이 암으로 인하여 죽는 수효가 년 4만여 명에 달하며, 여자가 남자보다 약 세 배가량 많다고 한다. 자궁암과 같이 만약 생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암만을 비교해보면 여자는 남자의 11배 이상으로 수많은 암이 여자를 괴롭히는 무서운 병이며, 결혼한 사람이 안한 사람보다 더 잘 걸리며 임신한 부인이 더 많이 걸린다고 주의를 요하기도 한다. 이러한 암의 치료에는 수술치료와 광선(=방사선)치료의 두 가지가 있는데, 쿠도는 라듐광선을 이용하는 것이 암 치료에 효과적임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쿠도는 최신의 부인과학적 지식을 지면을 통하여 전파하고 보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쿠도의 글 중에서 당시에 가장 주목을 끈 글은 조선총독부 기관지 『朝鮮』에 실린 「조선 특유의 범죄」(1929.2)라는 다소 선정적인 제목의 논문이 '조선부인의 본부살해에 대한 부인과학적 고찰'이라는 부제로 7회 연재되었으며, 이것은 「조선부인의 영아살해에 대한 부인과학적 고찰」이라는 글을 묶어서 1933년3월에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이라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서 그는 조선 여자의 살해범 수가 일본내지 여자의 9배이며, 대만여자의 30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며, 그 외의 프랑스와 독일 등의 여러 나라의 경우에도 남자 100명 당 많게는 15명, 적게는 8명에 지나지 않음에 비해 유독 조선에서는 88명이라는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특히 쿠도가 주목한 것은 조선여자의 살해범 가운데 '本夫(남편) 살해범'을 빼면, 조선에서의 남녀 살인범의 비율은 100명에 10명꼴이며, 이것은 일본 내지부인보다 낮은 비율이다. 따라서 조선여자의 남편살해범은 범죄통계학상에서 볼 때, 달리 그 비류를 찾을 수 없는 '조선특유의 범죄'로 규정하였다.

쿠도는 이러한 '통계'와 '비교'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통계를 이용한 비교 방식은 쿠도 뿐만이 아니라 총독부의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그것은 조선의 대중들을 계몽, 교화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의 유용한 도구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조선부인의 남편살해에 주목한 것은 쿠도 이전에 있었다. 1917년 당시 사법부장관으로 있던 고쿠분 산카이(國分三亥)가 「朝鮮婦人の本夫殺罪」라는 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바 있다. 여기서 고쿠분은 결론적으로 '本夫殺罪'는 조선인의 성격, 교육, 풍속, 관습 및 혼인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조선부인이 지능이 떨어지고, 교육이 발달하지 않았으며, 잔인성이 있으며, 또한 '조선부인이 어릴 때부터 색정이 발달하고 정조를 지키는 것이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이러한 견해의 바탕위에 쿠도는 좀 더 엄밀하게, 범죄 주체인 부인의 ①과거의 질환·신체·용모·성질 ②환경·유전 ③초경(初經)과 결혼연령 ④未産·經産·산아수의 관계 ⑤성욕상태 ⑥부인과질 ⑦본부의 정신·신체·성욕의 이상 ⑧공범의 유무 ⑨범죄시의 月曆과 기온의 관계 ⑩월경·임신·수유와 범죄의 관계 등을 논하였다. 여기서 쿠도는 조선부인의 남편살해라는 현상은 '선천성 범죄'로서의 특징인 累犯이 없고, 평소 잔인성의 모습도 발견되지 않았고, 유전적인 관계도 없다고 보았다. 본부살해는 '기회성 범죄' 중에 제한된 '지방적인 원인'에 의해 일어난 범죄로 판단하였다. 즉, 그것은 곧 조선 특유의 결혼 풍속과 관습이 낳은 병폐로서, 한마디로 '早婚'의 문제였다고 보았다.

조혼의 병폐와 폐습에 대해서는 개화기 때부터 '自由戀愛' '新女性'등이 언급되는 1920~30년대 여러 차례 꾸준히 지적되어왔으나, 어디까지나 고쳐야할 구습과 도덕적 차원에서 논하여졌지 이처럼 남편살해라는 범죄로 인식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쿠도의 이러한

18) 『朝鮮彙報』(조선총독부, 1917년 3월호), 6~23쪽.

주장이 과급을 일으켰다.

이후, 동아일보 기사는 쿠도의 이러한 주장을 근거로 「本夫殺害의 社會的考察」이라는 글을 실기도 하였다¹⁹⁾.

쿠도는 피상적으로는 ‘통계’와 ‘비교’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공공성의 外套를 입긴 했다. 그러나 그것이 조선이라는 식민지의 문화적 야만성을 內地(일본)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임으로써 식민지 지배의 정당성을 획득하고자한 목적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쿠도와 같은 과학으로 무장된 지식인을 통하여 식민지하의 조선은 ‘여성 범죄 국가’로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조선 지식인들은 그들의 논리를 전파하며 동조할 수밖에 없었다.

‘과학지’에 기댄 쿠도의 공공성은 ‘남성 대 여성’, ‘노인 대 청소년’, ‘유교 대 과학’, ‘구세대 대 신세대’, ‘구문명 대 신문명’이라는 구도를 만들고, 조선의 병폐와 몽매를 자각시키는 방향에서 있었다.

2) 유교 방면의 탐색

앞서 언급한 조선특유의 범죄 문제로 돌아가서 살펴보면, 쿠도는 조선특유의 범죄 즉, 조선이라는 ‘지방적’ 범죄의 원인으로, 「預婦(兒童婚)·預婦(幼女婚)’의 조혼, ‘賣買婚’, ‘使役婚’, ‘婢女’, ‘유교 중독’ 등 여자의 인격무시, 이혼의 불가능 등이다」²⁰⁾라고 하였다. 이 모든 조선의 풍습과 문화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하면, ‘조선의’ 유교의 문화와 관습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쿠도는 이렇게 말한다.

「이러한 사회병의 증상을 초래하는 원인은 조선특유의 관습풍속, 즉 특종의 결혼방식·조혼·이혼의 불가능, 여자의 인격무시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회악을 그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단지 윤리만으로 이를 억압하고자하는 것은 가장 우월한 것으로, 유교 특히 주자학파의 보급이 가장 완전하다라는 조선에 있어서, 세계에 유가 없는 이런 종류의 범죄와 같은 현상을 보이는 것만 봐도, 그 효과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 211쪽)

즉, 쿠도는 유교의 가르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지방지역의 유교문화’를 비판하는 것이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이다. 책에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婦人生理의 지식을 보급하고 국가조직의 단위인 혼인생활을 생리적인 도리에 따르도록 함에 있다고 믿는다」라고 끝맺고 있다. 이것은 조혼이 남편살해라는 범죄로 이어졌으며, 거기에는 조선의 유교적 원리를 부정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쿠도는 전공인 婦人科 지식은 물론이고 유교적 교양 및 인문학적 견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그는 「유교 및 불교가 조선의학에 끼친 영향」²¹⁾이라는 글에서 유교가 조선의학에 끼친 영향이 지대함을 인정하였으나, 여전히 세상의 進速과 推移에 대해서는 몰교섭하며, ‘독창적인 점이 하나도 없음’과 동시에 일보도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완전히 화석화 되어’ 버렸다고 보았다. 이 부분도 앞서 『조선특유의 범죄 본부살해범의 부인과학적 고찰』에서 그가 조선

19) <동아일보>, 金正實,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 (1933년12월9일~1933년12월24일) 12회.

20)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 219쪽 참고

21) 「儒教及び佛教が朝鮮医学に及ぼせる影響 『朝鮮』, 『朝鮮』 (37号), 朝鮮雜誌社, 1911

의 유교문화를 비판한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일본의 교육정신과 이퇴계』라는 글에서 쿠도는 주자학을 국가 지도정신으로 채택한 조선은 예의, 형식, 명분을 더욱 고조함으로써 치국의 방편으로 삼았으나, ‘曲學阿世의 腐儒’와 ‘朋黨의 鬪爭’을 양성하였으며, 결국 ‘形式道德의 頑陋한 型을 이루어 餘弊百出의 狀態’가 되어 버렸다고 진단하였다. 유교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화석화되고 정체화된 ‘조선의 유교문화의 병폐’를 지적하고 있다.

유교에 관해 간간히 언급되고 있는 쿠도의 이러한 입장은 그가 소장한 ‘退溪肖像’에 나타난 이미지와 관련하여 일제 강점기에 유교의 근대화로서 조선의 문인적 이미지가 아닌 젊고 강인하며 엄격한 ‘武人的’인 일본적 유교로 대체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된다²²⁾.

그러나, 다카하시 도오루(高橋亨)가 「王道儒道より皇道儒道へ」에서 ‘오늘날 조선에 있어서 크게 진흥해야 할 바의 유교 교화는 뜻뜻미지근한 유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충분히 일본의 국수에 동화된 국민정신 국민도덕을 계발하고 함양해 온 皇道的 儒道가 아니면 안 된다’²³⁾고 언급한 것과 같이, 황도적 유교에 해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일본의 교육정신과 이퇴계』의 서문에서 쿠도는 <교육칙어>를 둘러싸고 모토다(元田永孚)와 이노우에(井上毅)의 서신을 언급하면서, ‘교육칙어가 조선 팔도의 방방곡곡의 민중을 구하고 계림의 회생에 이바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²⁴⁾. <교육칙어>가 기본적으로 황도정신(国体ノ精華及び天壤無窮ノ皇運ヲ扶翼スベシ)의 바탕위에 유교적 덕목들을 나열한 것을 감안한다면, 쿠도 역시 皇道的 儒道(=皇道儒教)에 동조하고 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더불어 이 책이 출판되기 6개월 전에 ‘황도정신의 고취’와 ‘전아시아민족 대동단결’을 위한 <조선대아시아협회>가 발족되었으며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쿠도는 당시의 제국주의의 시대정신인 내선일체·내선융화의 그물망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²⁵⁾. ‘어둠=조선’을 ‘빛=일본’으로 계몽·교화, 편입시켜 內鮮一體를 달성하려는 일본의 근대적 기획의 틀 안에서 쿠도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행보를 가다듬고 있었다.

3. 결어

쿠도에 있어서 의료와 유학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일까?

쿠도는 퇴계를 모범으로 삼는 구마모토 실학당의 치국안민·이용후생·실천궁행적인 학문경향의 세례를 받은 지식인이다.

따라서 그의 이러한 유교적 이해의 경향은 그의 직업인 부인과 의사로서 더욱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었다. 조선에서 특히 여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조선의 남존여비로 인한 여자의 인격무시, 부인의 생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혼정책 등, 이러한 병폐를

22) 최재목 「退溪像의 변모」, 『退溪學報』(13집), 퇴계학연구원, 2011 참고.

23) 『朝鮮』(295호), 조선총독부, 1939 참고.

24) 이와 관련하여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学」, 『総合政策論叢』(第18号), 島根県立大学 総合政策学会, 2010. ‘大塚退野、横井小南のいわゆる熊本実学党の系譜に連なる元田が、李退溪を尊敬していたとしても何ら不思議はない。しかし、それはあくまでも日本に対する忠誠心があつての話である’ 참고할만하다.

25) 예컨대, 쿠도가 서문을 쓰고 추천한 『일본의 교육정신과 이퇴계』의 책이 목적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책의 또 다른 서문을 쓴 학무국장의 ‘一切を我が固有精神(=황도정신, 인용자)に鑄鑄する要を痛感するや切なるものあり’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낡는 조선의 완고·고루(頑陋)한 유교 문화에 메스를 대고자 하였다.

『조선특유의 범죄 본부살해범의 부인과학적 고찰』이라는 타이틀은 언뜻 보면, 조선부인의 잔인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거나, 실은 남성우월주의로 인한 어긋난 조선의 남성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풍속과 관습을 탈피하라고 역설하고 있다.

쿠도는 조선부인에 대해서는 비교적로 동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식민지 조선이라는 공간에서 위생을 계몽하고 암에 대한 근대적 의료 지식을 전파하고, 유교의 家父長制下的 남성중심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시선을 두고 부인과 지식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일단 전문적 직업에 따른 공공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과학-합리-통계라는 공공적 지식의 형식을 활용한 조선의 의료 현실을 담론화하고, 이를 통하여 그 문제의 배경-근원을 이룬 조선 유교를 건드리고, 조선 문화를 건드리며, 나아가서 조선 전체의 지적, 공공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어둠=조선’을 계몽·교화하여 ‘빛=일본’ 속으로 편입시켜 결국 內鮮一體를 달성하려는 일본의 근대적 기획의 틀 안에 그가 서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국지를 만들어 낸 일본의 근대지의 풍경 속으로 편입되어 가던 조선의 현실은 쿠도의 <유교-의료> 탐구 속에 노출되어, 당시 일본 제국의 知的 磁場이 만든 보이지 않는 손에 붙들려 있었음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朝鮮』, 日韓書房
『朝鮮及滿州』, 朝鮮及滿州社
『朝鮮』, 朝鮮總督府
<매일신보>, 매일신보사
<동아일보>, 동아일보사
工藤武城, 『朝鮮特有の犯罪本夫殺害犯の婦人科学的考察』, 京城婦人病院, 1933
工藤武城, 『婦人の調攝』, 京城婦人病院, 1912
國分三玄, 「朝鮮婦人の本夫殺罪」, 『朝鮮彙報』(大正六年三月号), 朝鮮總督府, 1917
大京城公職者名鑑刊行會, 『大京城公職者名鑑』, 京城新聞社, 昭和11
朝鮮公論社編纂, 『(在朝鮮內地人)紳士明鑑』, 조선공론사, 1917
『朝鮮在住內地人實業家人名辭典(第一編)』, 朝鮮實業新聞社, 1913
高田誠二·藤原一毅, 『日本の教育精神と李退溪』, 朝鮮事情協會出版部, 1934
법원도서관, 『(국역) 고등법원판결록』제4권(민사편-Ⅱ), 법원도서관 발행, 2008
홍양희, 「식민지시기 ‘의학’ ‘지식’과 조선의 ‘전통’: 쿠도(工藤武城)의 “婦人科學”적 지식을 중심으로」, 『醫史學』제22권제2호(통권제44호), 대한의사학회, 2013
전미경,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아내의 정상성: ‘탈유교’ 과정을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제49권1호, 숙명여자대학교아시아여성연구소, 2010
장용경, 「식민지기 본부살해(本夫殺害) 사건과 ‘여성 주체」, 『역사와 문화』13, 문화사학회, 2007
최재목, 「退溪像의 변모-肖像畫를 통해서 본 선비像의 변천에 대한 試論」, 『退溪學報』13,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金斗憲, 「朝鮮의 早婚과 및 그 起源에 對한 一考察」, 『진단학보』2, 1935

- 강해수, 「근대 일본의 이퇴계연구」, 『退溪學論集』 (2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松田甲, 「儒教より觀たる内鮮關係の二三例」, 『朝鮮』 (86号), 1922
- 松田甲, 「教育に関する勅語と李退溪」, 『文教の朝鮮』 (62号), 1930
- 高橋亨, 「王道儒道より黄道儒道へ」, 『朝鮮』 (295号), 1939
- 井上厚史, 「近代日本における李退溪研究の系譜学」, 『総合政策論叢』 (18号), 島根県立大学総合政策学会, 2010

최재목·김정곤, “일본제국주의 ‘공공성’의 한 단면”에 대해

고희탁(연세대)

위 연구는 부인과의사였던 구도 다케시로의 “<유교-의료>탐구”(14쪽) 시선에 식민지기 조선이 어떻게 포착되고 있었는지를 분석하여, “어둠=조선’을 계몽 교화하여 ‘빛=일본’ 속으로 편입시켜 결국 내선일체를 달성하려는 일본의 근대적 기획의 틀”(14쪽)을 정당화해간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공공성’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위 연구는 질병예방 및 치료, 응급구조 등을 포괄하는 의학적 지식의 양상, 의학적 인프라와 시스템의 정비 여부를 둘러싼 식민지기 생활사적 측면에 대해 연구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어떻게 일본이 조선에서 제국주의적 지배의 정당성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조달해가고자 했는지, 뒤집어 말하면 그런 이데올로기를 조선인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내면화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도 내포하고 있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건강 및 장수의 문제가 일상생활의 영위에 큰 관심거리 중의 하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의료문제와 연관된 당시 조선의 습속, 관행 등의 생활사적 측면, 그 배경으로서의 유교적 세계관이라는 사상문화적 측면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시선을 조선인들이 내면화하는 것이야말로 일본 지배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내선일체’의 도구 중의 하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묘한 문제, 단적으로 말하면 멸시받거나 학대받아온 조선여성의 시각에서 볼 때 일본인 의사(혹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던져진 의료적 개선에의 희망(“조선부인에 대해서는 비교적으로 동정적인 입장”, 13쪽)과 식민지 피지배자라는 민족적 정체성이 뒤섞인, 단순히 일도양단하기 어려운 다층적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방법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바도 동의하기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바가 없지 않은 것 같다. 이하 질문 및 문제제기 형식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첫째, ‘공공성’이라는 개념 혹은 시각이 논문제목에까지 명시될 정도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지만, 그것이 왜 중요하게 취급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짧은 길든 관계없이 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선, ‘식민지 공공성’이라는 논쟁적 문제에 대한 저자의 정리된 시각이 궁금해진다. 적어도 방법론적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이 문제를 피해가기는 어렵게 보이기 때문이다. 평자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제가 위에서 언급한 식민지여성의 다층적 정체성의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 ‘공공성’의 정의를 명확히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본문의 용례에서 볼 때, 개념의 여러 층위가 뒤섞여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의료-교육이라는 공공성”(1쪽), “과학-합리라는 명분의 공공성”(1쪽), “‘통계’와 ‘비교’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공공성의 외투”(11-12쪽), “과학지에 기댄 구도 다케시로의 공공성”(12쪽), “과학-합리-통계라는 공공적 지식의 형식을 활용”(13-14쪽) 등의 용례는 흔히 ‘근대지’ 그 자체(근대지 획득방법론까지를 포함하여)에 대한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데 비해, “대중을 계몽, 교화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11쪽), “유교의 가부장제하의 남성중심 사회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여성들에게 시선을 두고 부인과의사의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은 일단 전문적 직업에 따른 공공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조선 전체의 공공적 인프라와 시스템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14쪽)에서 ‘공공성’이 사용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근대지’ 그 자체보다는 그 가치지향성을 묻는 측면과 연동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만큼

위 연구에서는 ‘공공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둘째, 위에서 평자가 언급했을 정도로 중요한 논문이라는 데에 비해서는 논문적 독자성에 대한 경계 설정이 불분명한 점이 아쉽게 느껴진다. 위 연구에서는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2쪽)이라고 선행연구에 대해 소략히 취급하고 있는데, 적어도 각 주에서 거명한 홍양희(2013), 전미경(2010)의 연구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문제 혹은 접근 시각에서의 독자성이 명시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우선, 구도 다케시로와 조선유학의 부정적 연관이라는 문제가 평자에게도 관심을 갖게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사적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도가 “조선의 유교적 원리를 부정하려는 의도”(12쪽)를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구도가 “曲學阿世의 腐儒(썩은 유학자)”(12쪽)의 문제로 한정된 듯한 구절이 보이는데, 평자에게는 이 차이가 미묘하지만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다뤄졌는지, 다뤄졌다면 어떻게 다뤄졌는지, 혹은 그렇지 않다면 위 연구에서 다루게 된 연구사적 배경 등이 어떠한지에 대해 위 연구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평자의 바람에 가깝지만, 구도의 논저목록(4-5쪽)에 보이는 “民團自治政と公民の覺悟”, “米国人の所謂朝鮮問題”, “仏国人の朝鮮統治觀” 등의 논술내용 또한 위 연구주제와의 관련성이라는 측면에서 궁금한데, 목록에 제목만 소개되어 있어 아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단순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우선, “구도가 행한 조선에서의 <유교-의료>탐구는 당시 조선에서 보여주었던 일본 지식인들의 행태와 차별화된 매우 독특한 것”(2쪽)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 ‘차별화된 매우 독특한’ 특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구마모토변에 존재했던 두 가지 사상조류를 분류한 도표(7쪽)에서 실학당=민권파=오오즈카 타이야·요코이 쇼난·모토다 나가자네=진보파의 도식에서 메이지천황의 시강으로서 메이지정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모토다’를 이 도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듣고자 한다.

탈식민주의 과제와 한·일 역사화해의 새로운 모색

- 방법으로서 한일 역사교과서 대화를 중심으로 -

이신철(성균관대)

1. 머리말
2. 한일 역사교과서대화의 역사와 현주소
3. 지역 공공성 형성 방법으로서 역사교과서 대화의 가능성
4. 맺음말

1. 머리말

동북아시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강력한 역사갈등에 휩싸여 있다.¹⁾ 이 지역의 역사갈등이 격렬한 것은 전쟁과 식민지 청산문제와 냉전의 문제가 뒤섞여 있고, 이들 문제가 태냉전 이후 지역패권을 둘러싼 투쟁과 함께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성격 때문에 이 지역의 국가 간 역사화해는 거의 해결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 버린다.

이 지역에서 국가 간 역사대화는 역사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을 무마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되었을 뿐이다. 대표적 역사대화의 경험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와 ‘중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나마 시민사회 차원의 역사대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공동역사부교재를 여럿 만들어 내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역사부교재들은 저마다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이 지역의 국가 간 역사화해를 가능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 또한 만만치 않다. 이 글은 그동안의 한일 역사교과서대화가 도달해 있는 지점이 어디인지, 그것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적, 학술적 함의는 무엇인지, 지역의 공공성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사화해가 국가 간 역사화해를 이끌어 내고, 그것이 지역의 공공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본다.

2. 한일 역사교과서대화의 역사와 현주소

1) 민간차원의 공동부교재 편찬 활동

① 한일 공동부교재 편찬 활동²⁾

1) 역사 갈등은 논쟁과 분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논쟁은 말과 글을 통한 이론적 다툼의 성격을 가진다. 분쟁은 물리적 충돌을 포함한 외교적 충돌을 의미한다. 역사대화는 국가 간 역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포괄적인 행위를 의미하고, 역사교과서대화는 공통의 역사 교과서 또는 부교재를 통하여 역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활동을 의미한다. 교과서대화는 역사 이외의 과목 간에도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대화라는 용어는 역사교과서대화를 의미한다.

2) 이 글에서 공동교재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나라가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공식교과서로 사용될 수 있는 교과서를 의미한다. 당연히 국가 간의 합의가 필수이다. 공동부교재는 학생들이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교재를 의미한다. 물론 대학의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고, 각 그룹마다

한일 간의 첫 교과서대화는 1965년 유네스코에 의해 시도되었지만, 일본 측의 사정으로 시작조차 되지 못했다. 결국 첫 교과서대화는 1987년에 이루어졌다. 일본 쇼에츠교육대학(上越教育大學)의 가토 아키라(加藤章) 등이 한국의 이원순 등과 함께 해외학술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이 그것이다. 이들은 1989년까지 4회에 걸쳐 서울과 동경을 오가며 공동학술회의 ‘일본국과 대한민국의 역사교과서서술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진행했다. 이들은 양국 역사교육 관계자들에게 제공할 ‘권고안’과 ‘공동교과서’의 시안을 마련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목표달성에는 성공하지 못했다.³⁾ 1회성 행사의 성격을 가진 4회의 학술회의로는 그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두 번째 시도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대화는 독일역사대화에 감명을 받은 한국의 독일사학자 이태영과 일본학자 후지사와 호우에이(藤澤法暎)가 주도했다. 이들은 각각 국제교과서문제연구소와 일한교과서연구회를 조직하고, 1992년 10월까지 4차례의 ‘한일합동역사교과서연구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연구회를 통해 두 나라의 교과서 서술을 직접 검토하고 문제점을 토론했다. 또 공동교과서 발간 가능성과 함께 공동권고안 작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⁴⁾

두 차례에 걸친 교과서대화는 모두 교과서를 토론의 주제로 삼았고, 권고안과 공동교과서를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활동이었다. 그렇지만, 경험의 축적 없이 유럽의 성과를 답습하려는 시도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는 시기상조였다.

1997년 좀 더 장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목표로 한 교과서대화 모임이 등장했다. 한국의 창구는 서울시립대학 역사교과서연구회였고, 일본의 창구는 도쿄 가꾸게이(學藝)대학 역사교육연구회였다. 이들은 1997년 서울 시립대에서 첫 공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한일관계에 관한 통사를 쓰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이후 ‘한일역사교과서 심포지엄’을 조직하고 공통부교재 개발에 힘을 모아 나갔다. 이들이 공동연구를 뛰어넘어 공동집필을 계획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교과서대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일본측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가토 아키라(加藤章)와 집필자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와 한국측 고문 이원순, 집필자 정재정 등은 1987년과 1991년의 교과서대화에 참여했던 인물들이었다.⁵⁾ 특히 이원순은 1982년 한일 교과서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한일 역사교육 협의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었다.⁶⁾

이 같은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 그룹은 상대방의 교과서를 읽고 토론을 진행했다. 그렇게 열 차례의 심포지엄을 거친 후 이들은 본격적으로 서로의 원고를 검토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열 다섯 번의 심포지엄이 진행된 후 마침내 이들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공통교재, 공동교재, 공통부교재 등의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 글에서는 공통교재(교과서)가 아닌 경우 모두 공통부교재로 호칭한다. 당연히 민간차원에서 만든 다국간 교재들이 모두 포함된다.

- 3) 日韓歴史教科書研究會, 『教科書を日韓協力で考える』, 大月書店, 1993, 34쪽 ; 기무라 칸(木村幹)·정나미(鄭奈美), 「『歴史認識』問題と第1次日韓歴史共同研究を巡る一考察(一)」, 神戸大學大學院國際協力研究科, 『國際協力論集』第16卷 第1号, 2008, 171쪽 ; 이신철, 「한일 역사 갈등 극복을 위한 국가 간 역사대화의 성과와 한계-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 376쪽.
- 4) 이들은 연구회의 결과를 각각 日韓歴史教科書研究會, 앞의 책, 1993, 국제교과서문제연구소 편, 『한·일 역사교과서 수정의 제문제』, 백산자료원, 1994로 펴냈다. 연구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주백, 「한일간 역사대화의 모색과 협력모델 찾기(1982~1993)」, 『한일민족문제연구』 11호, 2006, 118~122쪽 참조.
- 5) 기미지마 가즈히코(君島和彦), 『教科書の思想: 日本と韓國の近現代史』, すずさわ書店, 1996, 51~55쪽.
- 6) 이원순, 「한일역사교육협의회 갖자」, 『동아일보』 1981. 11. 30

역사부교재를 완성하기에 이르렀다.⁷⁾

이들이 공동연구에 한창이던 2001년, 마침내 식민지 경영과 전쟁을 미화하는 중학교용 역사교과서(후소샤판)가 등장했다. 이는 ‘위안부’ 기술로 표상되는 1990년대 일본 교과서의 진전과 한일 교과서대화로 쌓아올린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⁸⁾ 그렇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한일 간 역사대화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었다.

한국 시민사회의 대응은 1980년대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1980년대에는 주로 민족적 감정에 의존한 반일운동이 주를 이루었던 반면에, 2000년대에는 이성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주류를 차지했다. 일본 시민활동가들을 초청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동행동을 모색하기도 했다. 80개 이상의 단체들과 역사학자 등이 모여 결성한 일본교과서바로잡기 운동본부의 활동이 가장 대표적이었다. 이들은 2001년 6월 23일 서울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여기에 일본 역사교육자협의회 상임위원인 미야하라 다케오(宮原武夫)가 참여해 「일본의 교과서 제도와 교과서 운동」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런 분위기는 이 시기에 등장한 다양한 형태의 한일 교과서대화 모임들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01년 7월부터 12월까지, 한일 간의 공통부교재 작성을 목표로 하는 모임이 3개나 등장했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역시 역사교육의 주역들인 양국의 교사들이었다. 한국의 전국역사교사모임과 일본의 역사교육자협의회 회원들이 뜻을 모았다. 모임의 매개는 6월에 개최된 심포지엄이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의 연대가 급진전되었다.

이들이 만든 공통부교재 『마주보는 한일사』에는 주로 교사들이 글을 쓰고 일부 연구자들이 편집, 번역, 검토에 참여하는 방식이 적용되었다.⁹⁾ 이들은 “편협한 국가주의를 벗어나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강조했다. 또 지배자 중심의 정치사뿐 아니라 사회·경제사와 민중들의 생활사까지 담으려고 노력했다.¹⁰⁾ 이들이 만나자마자 공통부교재 작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교사들의 상당수가 이미 다양한 한일역사대화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국가주의를 넘어서는 역사교육과 교과서에 대한 고민을 오래 해왔기 때문이었다. 일본 측 참가자들 중 상당수가 “일본의 한국 침략사, 한국의 민족 저항사, 일본과 한국 사람들의 우호연대사”를 내용으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후소샤판 교과서의 출현을 보면서, “일본 내의 배타적 국가주의가 동아시아 사회의 우려”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그 대안으로 그들은 “세계를 향해 열린 역사인식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¹¹⁾

같은 해 12월에 또 하나의 교사그룹이 탄생했다. 대구와 히로시마의 교사들이다. 이 모임

7) 한국 역사교과서 연구회, 일본 역사교육연구회, 『한일 교류의 역사 - 선사부터 현대까지』, 해안, 2007. 일본어 판은 明石書店(아카시쇼텐)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출간 경위에 대해서는 책 끝부분의 「독자 여러분에게」 참조(한국어 판 495~501쪽). 이들은 중간에 양국 교과서 검토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했다. 역사교과서연구회 편, 『역사교과서 속의 한국과 일본』, 해안, 2001 ; 歴史教科書研究會 編, 『日本と韓國の歴史教科書を読む視点(일본과 한국의 역사교과서를 읽는 시점)』, 梨の木社(나시노키샤), 2000.

8) 1991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의 등장 이후 일본 사회에서는 반성의 목소리가 강했고, 그 결과 1994년 고등학교, 1997년 중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관련 기술이 등장했다.

9) 이들이 처음부터 통사를 쓰기로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수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가이드북을 내기로 했다가, 판로 등 출판사정을 고려해 대중서를 내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이들은 공동작업을 2단계로 나누어 쟁점이 많은 근현대사 서술은 두 번째 단계로 미루어놓았다.

10)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독자여러분에게」, 『마주보는 한일사 I』, 사계절, 2006, 4~5쪽.

11) 전국역사교사모임·한국,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마주보는 한일사 II』, 사계절, 2006, 247쪽.

은 지역 교사들 간의 연대활동에서 발전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들은 2001년 8월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공동 부교재 작성에 합의했다. 실질적인 교재 개발은 2002년 1월부터 약 3년간의 공동세미나를 통해 진행하였다. 이들 역시 일본의 교과서과동이 계기가 되어 지역차원의 대안 모색을 목표로 교류했다. 이들은 근현대사 공동 서술을 목표로 삼았지만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가장 대표적인 한일교류의 역사에 대해 먼저 집필하기로 했다. 이들이 선정한 주제는 ‘조선통신사’였다. 근현대사 공동서술이라는 이들의 첫 목표는 2012년에 일단락 된 두 번째 공동 작업을 통해 달성되었다. 이 그룹에 조언자로 참여한 김양기는 “독일과 그 주변국의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프로젝트는 국가가 주도했지만” 자신들의 작업결과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민간조직이 주도하여 공통의 역사인식을 찾는” ‘세계 최초의 일’로 자부했다.¹²⁾ 이 같은 인식은 독일 역사대화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그룹도 유럽의 역사대화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해 10월에는 여성들로 구성된 대화그룹이 등장했다. 사실 이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오던 여성들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그룹들과는 성격이 좀 달랐다. 물론 이들이 공통부교재를 쓰게 된 계기는 역시 2001년 일본의 교과서과동이다. 다만, 이들은 “근대 초기부터 1945년까지 일본제국주의가 한국을 침략·점령하고 가혹하게 식민지 지배를 했던 것, 전후의 냉전체제하에서 일본이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청산을 회피했던 것, 그러한 무책임함이 지금까지도 ‘전후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사실에 입각하여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¹³⁾ 즉, 이들은 좁게는 ‘위안부’ 문제, 넓게는 일본의 식민주의와 전후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러한 고민의 도중에 한일의 교과서에서 여성의 관점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전후청산’의 한 방편으로 여성의 관점에서 본 한일공통의 부교재를 작성하기로 했던 것이다.

2001년을 계기로 등장한 다양한 그룹들은 2005년 4월 대구·히로시마 교사그룹을 필두로 앞 다투어 공통부교재를 출판했다. 이시기에 출간된 부교재들의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공통부교재 발간 현황>

도서명	제작기간	개발주체	대상 시기	주요 특징
한일 교류의 역사	1997~2007.3	서울시립대, 도쿄학예대 / 연구자	선 사 시대~현대	관계사 중심의 통사.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해에 중점.
마 주 보 는 한일사*	2001.7~2006.8	전국역사교사모임, 역사교육자협의회(일본) / 교사	선 사 시대~개항	양국 학생들이 상대국가의 역사와 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쉽게 서술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	2001.10~2005.8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편찬위원회[전쟁과 여성인권센터(한국), 여성·전쟁·	일 제 강점~현재	여성사적 입장에서 한일 근현대사 재조명

12)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 『조선통신사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과 우호의 조선통신사』, 한길사, 2005, 10쪽. 이 책의 출간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 책의 머리말과 한·일 양측 대표들의 후기 참조.

13) 한일여성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한울아카데미, 2005, 394쪽.

사		인권 학회(일본)] / 연구자, 시민		
조선통신사**	2001.12~2005.4	전교조 대구지부·히로시마 교직원 조합 / 교사	임진왜란~통신사 폐지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 탈피. 양국 화해와 상호 이해에 초점
미래를 여는 역사***	2002.3~2005.5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 연구자, 교사	개항~현재	3국의 근현대사
* 후속 근현대편 출간 막바지 작업 중이다.(2014년 출간 예정) ** 2012년 한일 근현대사를 다룬 후속판을 발간했다. ¹⁴⁾ *** 이 책은 한중일 공통부교재이다. 2010년 12월 영어판을 발행했다. 2013년 한중일 근현대사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룬 후속판을 발간했다. ¹⁵⁾				

한일 간에 공통부교재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편찬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출현에 따른 위기감이었다. 후소샤판 교과서가 의무교육 현장에서 사용될 위기에 처하면서 일본의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맹목적인 비난만으로는 일본 시민사회를 설득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이 같은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한껏 성숙되고 있었던 상황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1년에는 한일 공동월드컵을 앞두고 두 나라 사이에 전례 없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게다가 이 해 1월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이 술 취한 일본인을 구하다 죽음을 맞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계기로 작용했다.¹⁶⁾ 곧이어 불기 시작한 한류 열풍도 한일 공통부교재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이다.

② 한중일 공통부교재 편찬 활동과 한일 공통부교재의 성격 비교

2001년의 일본 교과서 파동은 확실히 한일 교과서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런데 이 같은 변화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바로 피해국과 일본 시민사회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이었다. 후소샤판 교과서 출현이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은 1980년대와 같은 모양새였지만, 그 내용은 판이하게 달랐다. 남·북·중·일 간의 시민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한일 간에 주로 진행되던 역사·교과서대화가 동북아 차원으로 발전한 것이다.

본격화된 한중일 교과서대화는 3년여의 공동연구 끝에 2005년 한중일 최초의 공통부교재 『미래를 여는 역사』를 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¹⁷⁾ 이 작업에는 한중일에서 모두 54명의

14) 한일공동역사교재 제작팀, 『한국과 일본 그 사이의 역사』, 휴머니스트, 2012 ; 日韓共通歴史教材制作チーム編, 『學び,つながる日本と韓國の近現代史』, 明石書店, 2013.

15)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1·2, 휴머니스트, 2012 ; 日中韓3国共同歴史編纂委員会, 『新しい東アジアの近現代史』上·中·下, 日本評論社, 2012.

16) 사건은 도쿄의 전철역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을 기리기 위하여 도쿄에서는 매년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간사이 국제센터'는 '故이수현 기념 한국 청소년 초빙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그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 영화가 제작되었고, 책도 두 권이 출판되었다.

17)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신문사, 2005 ; 日中韓3国共通歴史教材委員会, 『未来をひらく歴史: 東アジア3国の近現代史』, 高文研, 2005 ; '東亞3國的의近現代史'共同編纂委員會, 『東亞3國的의近現代史』,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6

연구자, 교사 등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특이한 것은 이들 대부분이 이전에 특별한 교과서대화 경험 없이 있었다는 점이다. 중국 측 참가자는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의 경우도 대부분 경험이 없었다. 몇 명의 집필자들만이 1990년대의 교과서대화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교사들 몇 명은 같은 시기에 진행되고 있던 다른 교과서대화에도 동시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쉽게 공통부교재 작성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의 경험에 의한 자극과 함께, 동아시아적 특수성이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세 가지 측면으로 설명해 볼 수 있다. 먼저 이 시기의 교과서대화가 일본 교과서의 역사왜곡에서 촉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유럽의 경우 비록 독일의 전쟁범죄 문제가 쟁점중의 하나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쟁 이전시기를 포함한 주변국끼리의 상호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과 차이가 난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경우 독일·프랑스, 독일·폴란드 등 양자 간 교과서대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에 동북아에서는 다자간 교과서대화가 가능해진다.

흥미로운 점은 유럽 교과서대화의 강한 영향을 받은 『한일 교류의 역사』 그룹은 선사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통사를 서술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교류사’ 즉 ‘관계사’를 다루었다. 그리고 두 개의 교사그룹도 교류사를 중심 주제로 삼았다. 『마주보는 한일사』의 경우는 전근대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다루긴 했지만, 교류사가 중심이다. 『조선통신사』 그룹은 가해와 피해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화해의 역사로서 조선통신사를 다루었다. 두 교사그룹은 역사인식 격차가 큰 근현대사 서술은 다음 단계의 작업으로 미루어놓았다. 전근대시기의 교류사를 강조하는 이들 세 그룹은 모두 유럽의 교과서대화의 중요 원칙 중 하나인 ‘상호이해’를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인식하고 있다.

『여성의 눈으로 본 한일 근현대사』 그룹과 『미래를 여는 역사』 그룹은 참여한 한국 근현대사를 직접 다루고 있다. 이 두 그룹은 유럽식의 상호이해보다는 일본의 ‘과거청산’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는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한 인식이다. 그런데 한중일 공통부교재 그룹은 스스로 ‘공동부교재’의 작성을 주장하면서도 근현대의 쟁점에 머무르고 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과 ‘한중 양국의 저항’, ‘침략전쟁과 민중의 피해’가 핵심이다. 이들의 후속작업도 근현대사에 머무르고 있다.

물론 모든 공통부교재 그룹이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교과서 파동 극복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한중일 공통부교재 그룹의 경우에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 문제가 일정하게 해결되어야 다음의 과제로 이행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대화에 북한과 타이완이 참여하게 된다면 이 같은 경향은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일 교과서대화의 두 번째 성립 배경에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 일본 시민사회의 시야 확장이라는 조건이 있었다. 한국의 경우, 맹목적인 반일감정이 크게 드러났던 1982년의 교과서 파동과는 달리 2000년대에는 합리적인 대안 모색의 목소리가 더 컸다. 당시 민간의 대응을 주도했던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가 그러한 역할을 주도했다. 당시 일부에서 ‘일본상품불매운동’을 제기했지만, 이 단체는 후소샤판 교과서를 지원하는 기업의 제품에 국한한 불매운동으로 유도했다.¹⁸⁾ 한국 시민사회의 이 같은 의식 변화는 1980년대 중후반 이후 꾸준히 전개되어온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성장이 큰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교과서 문제를 국내 문제로 인식하던 일본의 시민단체들도 식민지·전쟁 범죄 문제의 보편성을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국제공조를 모색했다.

세 번째로 한중일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의 연대가 가능했던 것은 그동안 국경을 가로막고

18)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이 같은 운동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만큼 역사문제를 경제, 문화 교류와 분리해서 보려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있었던 냉전이라는 장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었다. 한국과 중국은 한국전쟁 당시 적국이었다. 그런데 1992년 수교이후 전근대사회로부터 파생하는 유대감이 그 같은 적대적 감정을 빠른 속도로 감소시켜 주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동북아지역의 탈냉전을 가속화 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민간차원의 역사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⁹⁾

2) 정부 간 역사교과서대화의 모색

정부 간 교과서대화는 해당 국가의 미래전략, 미래의 국가이익과 밀접히 연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것은 비단 동북아의 문제도 아니고, 중국만의 문제는 더더구나 아니다. 두 나라 이상의 역사 대화, 특히 교과서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 사이의 대립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 가능성이 열린다. 유럽의 경우가 전자에 해당했다면, 동북아는 후자의 요인이 더 중요했다. 정부가 민간의 역사대화를 지원할 때에도 똑같은 법칙이 작용한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민간의 교과서대화를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나선 데에는 공통의 이익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일본 정부는 민간의 대화에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았다. 공통의 이익이 없었던 것이다.

동북아에서 정부 간 역사대화 와 교과서대화는 이 같은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한중일 정부 간 역사대화에서 한국과 중국은 공통의 이익이 더 강했다. 그런데 그것은 일본의 과거사문제에 국한되는 것이었다. 한중간 역사 갈등에는 해당되지 않았다. 일본은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에 의해서만 움직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한일 간, 그리고 중일 간의 역사대화만 가능했다. 대화의 내용도 각국 정부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 합의된 만큼만 진행되었다.

한일 간에는 2002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제2기까지 운영되었다. 위원회는 1기 6권, 2기 10권 분량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들 보고서는 이 위원회가 대립의 연속이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 전반에는 서로의 주장만이 있고 대화와 타협은 찾아보기 어렵다. 대립은 2기 위원회에서 더 심하게 드러났다. 1년여의 공백을 두고 2007년 겨우 재개된 2기 위원회는 출발부터 불협화음이 들려왔다. 긴 논란 끝에 ‘교과서 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교과서 위원회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뿐 아니라 양국의 교과서를 상호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간 교과서대화를 진행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 것이다.

그렇지만, 교과서 위원회는 회의 때마다 대립했고 회의가 중단되기 일쑤였다. 결국 교과서의 서술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 일본 측의 한 연구자는 한국 측 논문에 대한 비평문에서 “역사 교과서 공동연구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교과서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절하 했다. 또 “역사 교과서를 보는 방법에 대해 한국 측으로부터 특별히 지적인 자극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등의 인신공격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²⁰⁾

한일 사이에서 진행된 국가차원의 역사대화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대화 결과는 서로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교과서대화는 한일 간에 겨우 물꼬를

19) 2000년대 일본의 교과서 문제는 탈냉전이후 동북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일본 우익정치세력들의 미래전략에서 파생되었다. 중국의 ‘동북공정’ 또한 중국의 동북아 미래전략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동북아 역사분쟁의 이면에는 이 지역 국가들의 치열한 미래전략이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탈냉전의 영향은 한편으로 국가간 경쟁의 배경이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민간차원의 국경넘기의 동력이 되고 있다. 탈냉전과 한중일 역사분쟁의 관계에 관해서는 이신철, 「탈냉전시대 한중일 3국의 미래전략과 역사논쟁」, 『사림』 45호, 2013.6 참조.

20)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6권』, 2010, 162쪽.

텃지만, 실질적인 토론보다는 서로를 비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두 대화 모두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3. 지역 공공성 형성 방법으로서 역사교과서 대화의 가능성

공통의 역사인식을 마련하고자 하는 역사교과서 대화는 과거사에 대한 공통의 인식을 통해 미래의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역사교과서 대화는 한일 간,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역 공공성을 찾고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교과서 대화에서는 시민적 공공성과 국가적 공공성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식민주의에 대한 청산문제이다. 시민사회 차원의 대화에서는 과거사 청산과 탈식민주의적 역사인식은 쉽게 합의되고, 부교재 서술에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국가 차원의 대화에서는 그 차이만 확인되었을 뿐, 해결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한중일 교과서 대화는 중국이 참여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국가 차원의 교과서 대화의 보여줄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대화에서는 다른 경우와 다르게 일본의 침략문제가 좀 더 엄격하게 다루어졌다. 한일 국가 간 교과서 대화를 상정해 볼 경우에도 식민지 청산문제를 둘러싼 충돌이 가장 첨예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결국 교과서대화를 통해 지역의 공공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탈식민주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문제는 탈식민주의 문제는 아직 세계적으로도 미해결의 과제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서구 제국주의 경험 국가들에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유럽중심주의 해체와 탈식민주의에 대한 연구가 선구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일의 학계에도 그러한 영향은 강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제국주의 경험 국가들이 식민지 피지배 국가에 대해 사과를 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이탈리아와 영국, 독일 등이 부분적인 사과를 했을 뿐이다. 역사교과서 대화도 매우 지지부진하다.

프랑스의 경우 1988년에 현대사연구소(L'Institut d'histoire du Temps present) 주관으로 연구자 50명 이상이 모여서 알제리 독립전쟁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시도했다. 1996년에는 프랑스와 알제리 학자 각각 7명이 한 자리에 모여 같은 문제를 논의했다.²¹⁾ 그리고 알제리 독립전쟁에 관한 치유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했다.²²⁾ 그리고 프랑스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알제리와 탈식민주의 문제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연구가 나타나기도 했다.²³⁾ 1998년 노예제 폐지 150주년을 전후해서는 노예제의 피해자와 그 후손들이 입은 피해를 치유하려는 노력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 결과 2001년 노예매매와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것을 반인륜범죄로 처벌한다는 '토비라(Taubira)법'이 제정되기도 했다.²⁴⁾

21) Sylvie Thénault, L'Algérie au coeur de l'actualité et de l'histoir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52, Numéro spécial: Les crises économiques du 20e siècle (1996), pp. 125-126.

22) Sylvie Thénault, France-Algérie. Pour un traitement commun du passé de la guerre d'indépendanc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85 (2005).

23) Marie-France Lange, Vers de nouvelles recherches en éducation, *Cahiers d'Études Africaines*, Vol. 43, Cahier 169/170, Enseignements (2003)

24) 이에 관해서는 오키우 요코(尾立要子), 「フランス海外領土と植民地責任 - 'トビラ法'の成立と実施をめぐる

유럽의 식민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케냐, 말리, 모잠비크, 나이지리아가 독립이후의 교육 과정에서 어떤 개혁적 사고와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²⁵⁾ 영국이 식민지국가들에게 문명을 전파했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영국이 케냐에서 자행한 만행을 다룬 저작도 등장했다.²⁶⁾ 그런데 제국 영국과 식민지 국가의 관계를 식민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구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오히려 Denis Judd와 Peter Slinn의 주장처럼 대영제국의 해체를 ‘영국의 식민지책임의 종언’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시각이 피식민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이미 제기되어 있다.²⁷⁾

탈식민주의 연구 성과는 아직 유럽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고, 식민지와 교과서대화를 현실화시키지도 못했다. 오히려 프랑스 의회는 2005년 2월 학생들에게 식민지 정책, 특히 북아프리카 지역 식민지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을 가르치도록 교육 프로그램 작성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역사학계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지만 법을 취소하지는 못했다. 지금도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²⁸⁾ 2012년 독일에서도 좌파정당 연방의회 의원들이 나미비아와의 교과서대화를 주장했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1992년 프레데릭 들루슈(Frédéric Dolouche)와 동료들은 유럽 공동의 역사를 표방한 『유럽의 역사』를 펴냈다. 이 작업은 EC의 지원을 받았고, 유럽 12개국의 연구자, 교사들이 참여했다. 또 교과서대화를 주도하고 있던 독일 연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책은 프랑스어판을 필두로 유럽 각국어판으로 출간되었고, 일어판과 한국어판도 나올 정도로 주목 받았다. 그런데 이 책은 유럽에서조차, 식민주의로 대표되는 ‘유럽 세계와 비유럽 세계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²⁹⁾ 독일과 프랑스의 공통교과서도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일 시민사회의 교과서 대화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탈식민주의에 입각한 상호존중의 교과서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피식민지 국가들 간에 사과가 이루어지고, 탈식민주의 역사서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면, 일본 정부는 심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기대고 있는 것이 바로 구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주의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이다.

한일 교과서대화의 경험은 그러한 점에서 유럽 국가들의 태도를 변화시킬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과서 대화의 모범으로 칭송되고 있는 독일-폴란드, 독일-프랑스 공동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적 인식과 탈식민주의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은 식민지 경험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음이 분명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과 프랑스의 교과서는 일본의 전쟁과 식민지배 사과에 대해서 “일본이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

て], 나가하라 요코(永原陽子)編, 『植民地責任論』, 青木書店, 2009 참조.

25) David C. Woolman, Educational reconstruction and post-colonial curriculum development: A comparative study of four African countries, *International Education Journal* Vol 2, No 5, 2001.

26) Caroline Elkins, *Imperial Reckoning: The Untold Story of Britain's Gulag in Kenya*, New York: Owl Books, 2005.

27) Denis Judd / Peter Slin, *The Evolution of the Modern Commonwealth 1902~90*, Palgrave Macmillan, 1982. ; 이에 대한 비판은 마에카와 이치로(前川一郎), 「イギリス植民地問題終焉論と脱植民地化」, 나가하라 요코(永原陽子)編, 앞의 책, 2009.

28) Saïd Chekri, *L'histoire se répète avec Alger, Liberté*, 29.09.2009. 등의 비판적 기사와 관련 연구서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29) 곤도 다카히로 지음, 박경희 옮김, 『역사교과서의 대화』, 역사비평사, 2006(일본어판 1998), 187쪽.

게 자국 군대가 저지른 잔혹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이를 잊지 않은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반일 감정의 골이 깊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덧붙여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 일부를 자료로 소개하고 있다.³⁰⁾ 마치 일본이 적절하게 사과를 했음에도 중국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서술하고 있다. 한국의 대일 식민주의 청산요구에 대한 언급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이 같은 서술은 이 교과서가 전쟁 범죄에 대한 사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의 사과행위가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북아의 역사 갈등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서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 시민사회의 탈식민주의 인식을 바탕으로 유럽 구 제국주의 국가들에게 동서양 지배-피지배 국가간의 역사대화의 필요성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 같은 상황이 실현된다면, 그것은 유럽 각국 정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고, 일본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될 것이다. 한일 시민사회의 교과서 대화는 직접적으로 한일 정부간 교과서 대화를 압박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우회로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4. 맺음말

한일 간의 교과서 대화는 두 나라간의 공통의 역사인식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을 추구하려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국가 간 대화의 경험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다. 격차의 핵심은 탈식민주의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일본 정부는 전후청산의 책임을 소극적으로 인식하면서, 탈식민주의에 대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지역 공통의 역사인식 마련은 요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변화는 탈식민주의적 입장을 가진 정권이 탄생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것은 시민사회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 역사교과서 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그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한다.

한일 간 탈식민주의적 시각의 역사대화의 경험을 유럽에 전수하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유럽의 교과서 대화노력이 전후청산에 맞추어져 있고, 탈식민주의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점에서 그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유럽의 구 제국주의 국가들과 피식민지국가들간의 대화가 성립된다면, 그것을 역으로 일본과 한국 정부간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일간 역사대화의 경험은 우회적으로 지역의 공공성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0) 독일·프랑스 공동역사교과서편찬위원회 기획, 앞의 책, 42~43쪽.